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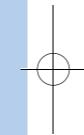
# 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필요해

예영 글 황유리 그림

필요해



드인돌 어린이



드인돌 어린이

또인돌어린이



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또인돌어린이  
를 만난다



# 뜨인돌어린이

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필요해

글 예영 그림 황유리

초판 1쇄 발행 2010년 5월 20일

펴낸곳 뜨인돌어린이 펴낸이 박미숙

총괄상무 김원중 편집장 인영아

책임편집 이경화 기획편집팀 여은영 이슬아 디자인팀 김세라 오경화

마케팅팀 이학수 오상우 엄경자 진영수 총무팀 김용만 고은정

필름출력 공간 인쇄 대신문화사 제작 시아북비인딩

사진제공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김효정 로이터통신 연합포토

신고번호 제313-2008-131호 신고년월일 2005년 8월 5일

주소 121-84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6-46

대표전화 (02)337-0212, 5252 팩스 (02)337-5868

뜨인돌 홈페이지 [www.ddstone.com](http://www.ddstone.com) 뜨인돌어린이 카페 [cafe.naver.com/kidsstone](http://cafe.naver.com/kidsstone)

노빈손 홈페이지 [www.nobinson.com](http://www.nobinson.com)

ISBN 978-89-93963-17-5 73810

책값은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http://www.nl.go.kr/eci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0001725



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뜨인돌어린이

필요해

예영 글 황유리 그림

뜨인돌어린이

##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한집에 사는 한 가족입니다



지난해 여름의 일입니다. 별 생각 없이 신문을 들쳤더니 저는 한 장의 사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소년이 고개를 숙이고 웅덩이의 물을 마시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흙탕물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둉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놀라움에 기사를 읽어 보니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몇 년째 극심한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실 물이라고는 오염된 물뿐이고, 그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매일 물통을 들고 몇 시간씩 걸어 물을 길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열 살 남짓한 아이들이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에 휘말려 총칼을 들고 싸우고, 또 어느 곳에서는 예방주사 한 대를 맞지 못해 가벼운 전염병에도 사람들이 폐죽음을 당하고 있

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때문에 팔려온 아이들이 동이 틀 무렵부터 해가 질 때 까지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신문을 읽던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얹어맞은 듯 머릿속이 맹해졌습니다.

풍요로움의 시대라는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화가 나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과연 내가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 국가나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던 중 세계 곳곳에서 천사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빨빠르게 달려가 도움을 주는 국제 협력 단체들과 이들의 활동을 돋는 세계 각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바로 그들이지요. 그들은 나라와 인종이 다르지만 마치 한 가족의 일인 양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정성 어린 손길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기아,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머나먼 나라의 고통 받는 이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관심을 가져 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지구라는 한집에 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작은 관심과 조그만 도움이라도 좋으니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볼까요?

어린이들의 수호천사가 되고 싶은 예영

## 차례



전 세계의 빈곤 아동을 돋는 국제기구 **세이브더칠드런**

### 초콜릿 속에 숨겨진 쓰디쓴 진실을 아시나요? \_ 8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마리암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_ 20

깨끗한 지구,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위한 조용한 행동 **그린피스**

### 사라지는 투발루를 구해 주세요 \_ 26

투발루를 구해 달라는 마누아의 소원을 들어줄 요술쟁이는 누구일까요? \_ 38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대명사 **국제연합**

### 전통이라는 이름의 끔찍한 폭력, 할례 \_ 44

할례가 영원히 사라지길 바라는 아르다의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_ 56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 재앙의 물을 마시는 아이들 \_ 62

사무엘과 코어 마을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방법은 없을까요? \_ 74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백색 가운을 입은 군대 **국경없는의사회**

### 전쟁이 빼앗아 간 것들 \_ 80

르완다 국경선을 넘어서는 순간 의식을 잊은 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_ 90

**프란클어린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인권 수호 단체 **국제앰네스티**

### 열세 살의 사형수 \_ 96

하루만 더 살게 해 달라는 라엘의 간절한 기도를 누가 들어줄까요? \_ 110

세계인의 건강 지킴 단체 **세계보건기구**

### 콜레라를 이겨 낼 방법은 없나요? \_ 116

움추미와 마을 사람들은 콜레라를 이겨 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_ 128





| 세이브더칠드런 |

너희들은 소원이 뭐니? 난 딱 하루만 일하지 않고 놀아 보고 싶어.  
난 배부를 때까지 실컷 먹어 봤으면 좋겠어.

난 빨리 빛을 갚고 집에 돌아가는 거야

난 책가방 메고 학교에 다녀  
**뜨인돌 어린이**  
에이! 우리,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초콜릿 속에 숨겨진 쓰디쓴 진실을 아시나요?

**뜨인돌 어린이**





내 이름은 마리암이에요. 올해로 열세 살이 된 소녀랍니다. 나는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 코트디부아르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요.

챙! 챙! 챙! 챙!

창밖으로 요란하게 들리는 저 청덩어리 부딪치는 소리는 아침 6시, 기상 시간을 알리는 신호예요. 숙소에는 나를 포함해 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우린 모두 저 소리를 ‘지옥의 소리’라고 부른답니다. 저 소리와 함께 고된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나는 떠지지 않는 눈을 간신히 뜨고 몸을 일으켰어요. 조금만 더 누워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이불로 파고들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늑장을 부리면 등 뒤로 곧장 소가죽 채찍이 날아오니까요.

이런, 벌써 누군가 채찍에 맞은 것 같네요. 아마 막내 이레느일 거예요. 이제 겨우 일곱 살인 이레느는 이곳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어 적응이 덜 됐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이곳 생활에 익숙해질 거예요. 나를 비롯한 이 방에 있는 친구들 모두 그랬으니까요. 소리 내어 울면 울수록 채찍질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울어도 누구 하나 달래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겠지요.

우리는 졸린 눈을 비벼 가며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길을 걸어갔어요. 목적지는 숙소에서 5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카카오 농장이에요. 이곳에서 앞으로 12시간 동안 일을 해야만 해요. 우리는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거든요.

내가 이 농장에 온 건 7년 전, 여섯 살 때였어요. 너무 어렸을 때의 일인데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 가물거리기는 하지만 어떤 낯선 아저씨를 따라 배를 타고 왔던 기억이 나요. 내 기억이 맞는다면 집을 떠나온 날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마리암, 그곳에 가면 배불리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고맙게도 학교에도 보내 준다지 뭐냐?”

그런데 아빠의 얘기는 모두 틀렸어요. 난 농장에 온 이후 단 한 끼도 양껏 먹은 적이 없고, 돈 한 푼 받지 못했으니까요. 농장 주인아저씨는 나를 데려올 때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해서 그 돈을 갚기 전에는 품삯을 줄 수 없다고 하세요. 7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는데 말예요. 그리고 학교는 근처에도 가 보지 못했어요.

농장에는 가끔 대여섯 살짜리 어린 꼬맹이들이 올 때도 있어요. 그 애들은 한동안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면 울고불고 난리죠.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하루 12시간씩 일하다 보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울 기운조차 없어요. 엄마 아빠 생각도 점점 줄어들지요. 사실 난 이제 가족의 얼굴도 잘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집을 떠나온 건 너무 오래전 일인걸요.

옛날 생각을 하는 사이 농장에 도착했네요. 어둠도 멀찌감치 물러가 사방이 환해졌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 볼까요?

우리는 농장에서 카카오를 생산하는 일을 해요. 카카오는 럭비공처럼 길쭉하게 생긴 열매예요. 품종에 따라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지요.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에서 카카오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로 유명해요. 전 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40퍼센트를 차지한다니 굉장히 요?

이 카카오가 바로 초콜릿을 만들 때 사용되는 주원료예요. 사실 난 초콜릿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어린이 일꾼 중 단 한 명도 초콜릿 맛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요. 얇은 직사각형 판처럼 생긴 초콜릿을 농장 주인댁 아들 나르고가 먹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초콜릿을 입에 넣은 나르고의 표정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는 나르고가 초콜릿을 입에 넣을 때마다 군침을 꼴딱꼴딱 삼켰지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나는 종종 초콜릿 맛  
을 상상해 보곤 해요.  
그 맛은 음……, 분명  
천사들이 행복하게 사  
는 천국의 맛일 거예요.

참, 나르고한테 들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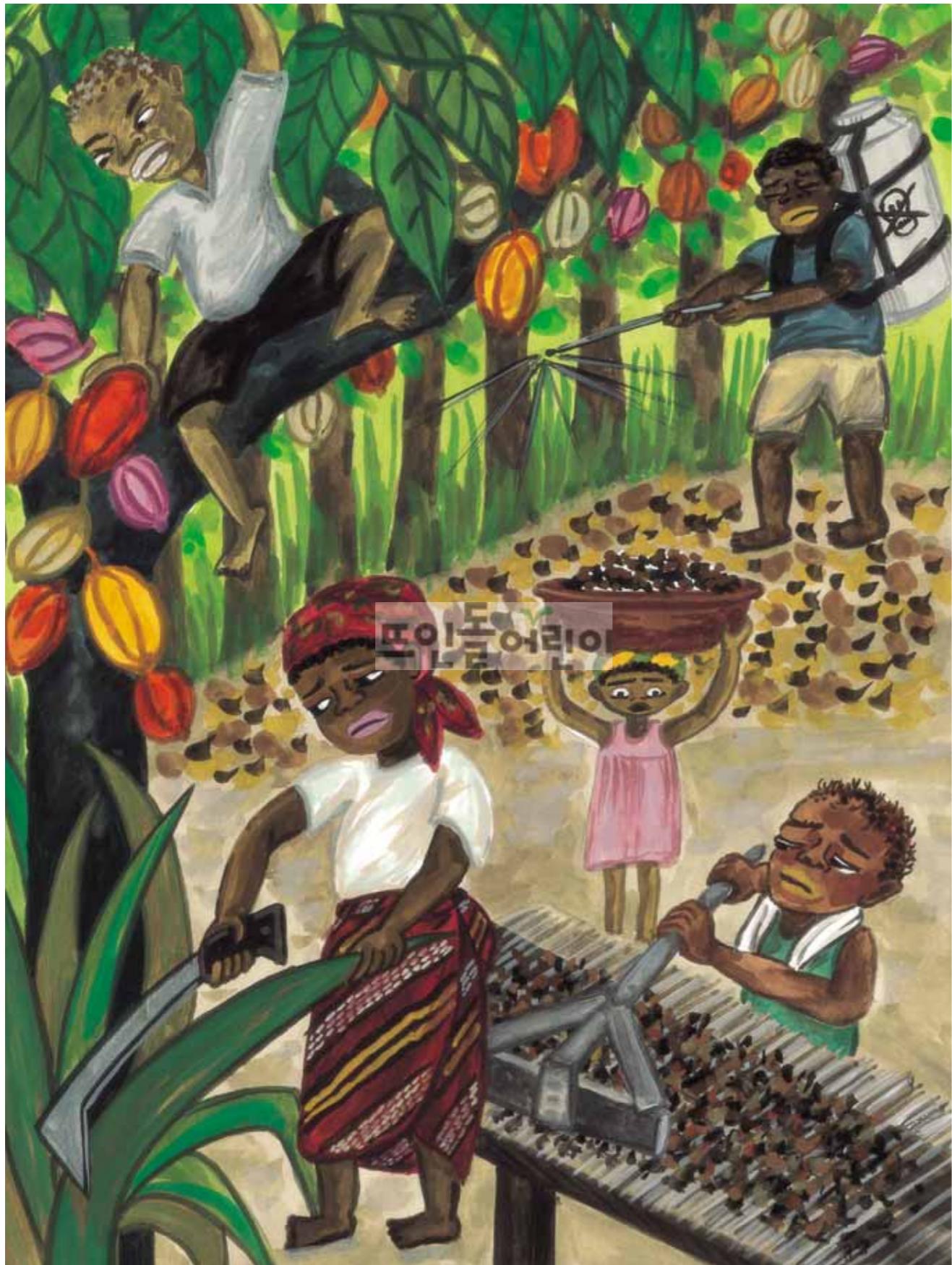
부자 나라에서는 매년 2월 14일에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초콜릿을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한다는군요. 그날이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던가요?  
그럼 해마다 그날이 되면 남자들은 맛있는 초콜릿을 실컷 먹겠네요.  
아, 부러워라!

## 드인돌 어리이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나이는 일곱 살에서 열두 살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는 말아요. 하는 일은 어른들 못지않게 많답니다.

키가 10미터도 넘는 카카오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일부터 열매 껍질을 쪼개어 카카오콩 꺼내기, 콩을 발효시켰다가 햅볕에 바싹 말리기, 거름주기까지 대부분의 농사를 우리 힘으로 짓고 있지요.

내가 하는 일은 따로 있어요. 농약을 친다거나 잡초를 없애는 일이지요. 이건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로 농장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아이들에게만 시켜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몇 시간 동안 마시트(긴 낫)를 휘두르며 잡초를 걷어 내다 보면 다리가 휙청거리면서 온몸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요. 그리고 아무리 조심해도 날카로운 마시트에 베어 상처가 생기지요.

그래도 이 일이 농약치기보다는 덜 위험해요. 내 몸집보다 더 큰 농약통을 메고 카카오나무에 농약을 치다 보면 아무리 입을 꼭 다물어도 농약이 입으로 들어가거든요. 농약을 치고 나면 많이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몇 날 며칠을 토하기도 해요. 농약 치는 일을 도맡다시피 했던 시아카 오빠는 한쪽 눈이 멀기도 했어요.

작업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농장 주인 아저씨는 우리한테 일을 더 시키고 싶어 하는 눈치예요. 하지만 전기가 없는 곳에서 해가 진 후에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헤헤, 이럴 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게 어찌나 다행인지 몰라요.

“뭘 꾸물대는 거야! 오늘 할 일이 산더미야! 목표량을 채우려면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라고!”

애고, 뚜레 아저씨의 잔소리가 또 시작되었군요. 뚜레 아저씨는 농장에서 우리를 관리하는 분이에요. 난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건 견딜 수 있지만, 뚜레 아저씨의 감시는 너무 무서워요. 아주 잠깐이라도 숨을 돌릴라치면 영락없이 소가죽으로 만든 채찍이 등짝을 철썩 후려갈긴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이 고되고 뚜레 아저씨가 무서워도 농장을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도망쳤다가 붙들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기다리는지 잘 아니까요. 높디높은 카카오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뚜레 아저씨에게 채찍질을 당하며 온갖 욕설을 듣거든요. 그뿐이 아니에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굶는 별도 받아야 해요.

그러다 보면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는 친구도 생기지요. 아, 이 얘기  
는 그만둘래요. 몇 달 전에 죽은 알라산의 얼굴이 떠올라서 괴로워요.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12시!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식사해야  
멀건 죽 한 사발과 뺏뻣한 빵 하나가 고작이지만 하루 중 즐거움을 느  
낄 수 있는 시간은 이때뿐이에요. 잠깐이라도 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레느는 아직 농장일이 서툴러 죽을 반 그릇밖에 못 받았어  
요. 뚜레 아저씨는 해야 할 일을 시간 내에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식  
사랑을 절반만 주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굶기는 일은 없지요. 굶으면  
힘이 없어서 일을 부리지 못한다나요?

굶은 점심시간을 끝내고 우린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농장으  
로 우아타라 씨가 오는 날이라서 무척 바빠요. 우아타라 씨는 카카오  
콩을 사러 오는 중개상인이에요. 오늘 우아타라 씨는 잘 말린 카카오  
콩 5,000킬로그램을 사 갈 거래요. 나는 잡초 없애는 일을 멈추고, 카  
카오콩을 저울에 달아 포맷자루에 넣는 일을 도왔어요.



저녁 무렵, 농장으로 우아타라 씨가 왔어요. 두 달에 한  
번꼴로 오는 우아타라 씨를 제일 반기는 사람은 바로 농장 주인아  
저씨예요. 언제나 심통 맞은 표정으로 우릴 노려보던 주인아저씨의 얼  
굴이 우아타라 씨만 보면 활짝 펴지지요.

오늘 주인아저씨는 카카오콩을 5,000킬로그램이나 팔았으니 제법 두

둑한 돈을 챙겼을 거예요. 그래도 아저씨는 우아타라 씨가 떠나자마자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합니다.

“저 도둑놈 같으니라고. 니들이 나한테 헐값으로 사 간 카카오콩으로 초콜릿을 만들어 50배나 남는 장사를 하는 걸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품삯을 주는 대신 꼭 이런 말을 하지요.

“농약 값, 비료 값은 치르고 너희들이 먹을 쌀과 빵을 사고 나면 매번 적자야! 카카오콩 값을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나도 너희들한테 이렇게 박하게 굴지는 않을 텐데 말이야.”

농장의 일꾼 중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평소에는 저녁 7시에 농장 일이 끝나는데 오늘은 우아타라 씨의 차에 카카오콩을 운반하느라 8시가 훨씬 넘어서야 끝났어요.

이제부터 자유 시간이에요. 그렇다 해도 마음 편히 쉴 틈은 없답니다. 개울물을 길어다 흙을 가라앉혀 내일 쓸 를을 만들어 둬야 하고, 숙소도 청소해야 해요. 아참, 아까 마시트에 걸려 찢어진 치맛자락도 꿰매야겠네요.

힘겹게 하루 일을 마치고 숙소 방에 돌아오면 온몸이 물에 푹 젖은 솜뭉치처럼 무거워요. 게다가 팔다리는 마디마디마다 시큰거리고, 낮에 잡초를 뽑으면서 베인 상처들은 화끈거려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럴 때면 나는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곤 해요. 우리의 수다는 주로 꿈에 관한 얘기죠.

“난 단 하루만이라도 일하지 않고 쉬어 보는 게 꿈이야.”

“하루로는 어림없어. 난 빨리 어른이 돼서 농장을 떠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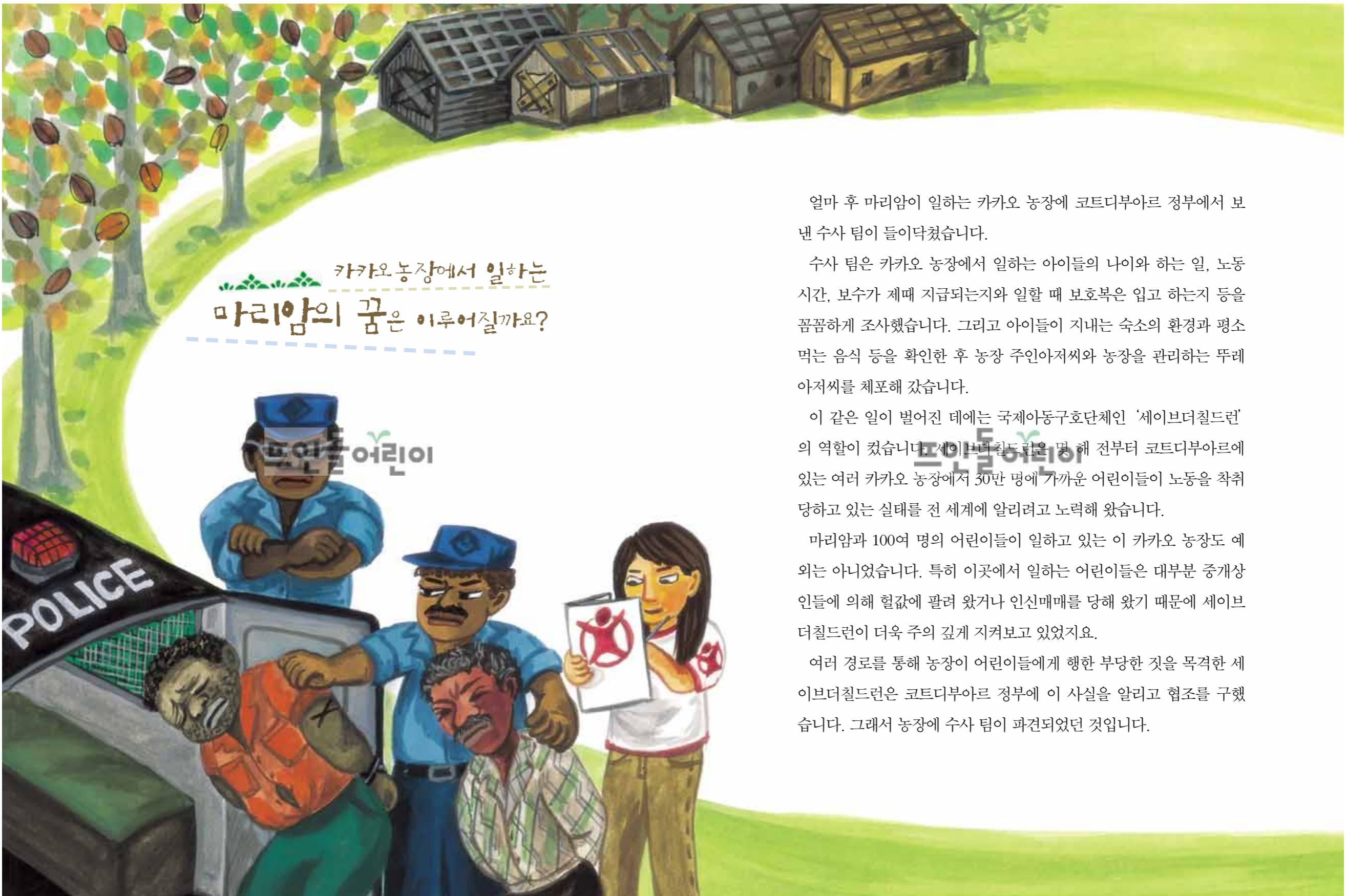
“농장을 벗어나게 되면 꼭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멋진 여성이 될 거야.”

나는 말이죠. 두 개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서 돈을 많이 벌어 빚을 갚고 고향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눌 때마다 숙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에브라 언니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헛된 꿈꾸지 마. 그런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농장 주인은 우릴 실컷 부려 먹다가 쓸모없어질 때쯤 쫓아낼 게 분명해!”

언니의 통명스런 말에 우린 모두 입을 꾀 다물었어요. 언니 말이 맞다는 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오늘 밤 꿈속에서만은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싶어요. 꿈속에서는 꿈을 꿔도 괜찮겠지요?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마리암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얼마 후 마리암이 일하는 카카오 농장에 코트디부아르 정부에서 보낸 수사 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 팀은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나이와 하는 일, 노동 시간, 보수가 제때 지급되는지와 일할 때 보호복은 입고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내는 숙소의 환경과 평소 먹는 음식 등을 확인한 후 농장 주인아저씨와 농장을 관리하는 뚜레 아저씨를 체포해 갔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에는 국제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역할이 커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몇 해 전부터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여러 카카오 농장에서 30만 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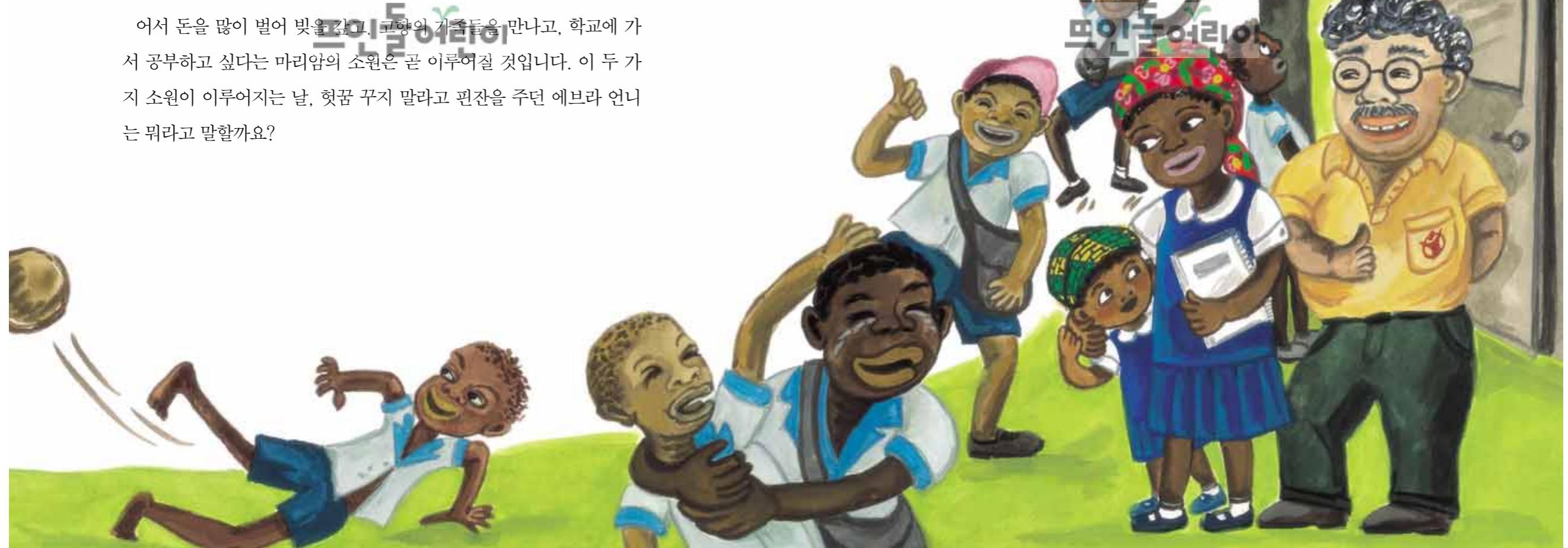
마리암과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일하고 있는 이 카카오 농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은 대부분 중개상 인들에 의해 혈값에 팔려 왔거나 인신매매를 당해 왔기 때문에 세이브더칠드런이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여러 경로를 통해 농장이 어린이들에게 행한 부당한 짓을 목격한 세이브더칠드런은 코트디부아르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수사 팀이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카카오 농장에 있던 아이들은 우선 세이브더칠드런이 마련한 아동보호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마리암과 몇몇 친구들은 영양 부족과 약해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고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가족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보내온 후원금으로 지은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더 이상 농장 주인아저씨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농장 주인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그동안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군요.

어서 돈을 많이 벌어 빚을 갚고, 고향의 가족들을 만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리암의 소원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헛꿈 꾸지 말라고 편지를 주던 에브라 언니는 뭐라고 말할까요?



전 세계의 빈곤 아동을 돋는 국제기구

# 세이브더칠드런

##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떤 곳인가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의 빈곤 아동을 돋는 세계 최대의 아동구호단체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호활동, 가난 때문에 병에 걸려도 치료를 못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한 아동노동착취 반대운동 등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지키기' 1,000만 인  
서명운동은 아동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919년 에글렌타인 쟁 여사에 의해 영국에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고통과 가난 속에 있었어요. 특히 전쟁에서 패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식량 부족으로 곳곳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넘쳐났지요. 이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은 쟁 여사는 영국 정부에 패전국 어린이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지만 적으로 싸웠던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며 거절당했어요.

그러자 쟁 여사는 세이브더칠드런을 설립하여 어린이들을 돋기 위한 기금 마련

운동을 벌였어요. 이후 쟁 여사는 전 세계로 구호활동을 넓히기 위해 국제세이브더칠드런연맹을 설립했어요. 오늘날 국제세이브더칠드런연맹에는 120여 개국의 회원국이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돋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우리나라가 세이브더칠드런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53년입니다. 그 무렵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수많은 피난민과 전쟁고아가 생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때 세이브더칠드런이 구호활동을 펼쳐 큰 도움을 주었지요. 이 일을 계기로 한국에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라는 아동구호재단이 생겼어요.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설립 초기에는 농촌 지역의 개발 사업이나 도시의 영세민 자녀들을 돋는 등 국내 활동을 하다가 1990년대부터는 활동의 폭을 넓혀 해외 어린이들을 돋고 있어요. 최근에는 저체온증으로 죽어 가는 아프리카 말리의 신생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자뜨기 캠페인을 벌였고,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 아이 지키기'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아동구호활동을 펼치는 단체들  
세이브더칠드런 [www.sc.or.kr](http://www.sc.or.kr)  
유니세프 [www.unicef.or.kr](http://www.unicef.or.kr)  
어린이재단 [www.childfund.or.kr](http://www.childfund.or.kr)  
컴파션 [www.compassion.or.kr](http://www.compassion.or.kr)



우리나라는 투발루입니다.  
나는 투발루 국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른 나라 국민으로 살아야 한답니다.  
투발루가 물에 잠겨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는 우리나라, 투발루를 구해주세요.

사라지는 투발루를 구해 주세요

프인돌 어린이





투발루를 아시나요? 지구에서 섬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남태평양, 그 한가운데에 아홉 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섬나라가 투발루랍니다.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비행기 위에서 투발루를 내려다보면 섬들이 뱀처럼 꼬리를 물고 늘어져 있는 모양이라네요.

투발루의 총 면적은 약 26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나라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섬의 끝에서 끝을 오가는 데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으니 정말 아담하지요? 인구도 겨우 1만 명이 넘을 정도랍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광만큼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요. 이곳에 와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야, 지상 낙원이 따로 없네!”

나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열두 살 소녀 마누아입니다. 우리 집



은 투발루의 수도이며, 아홉 개의 섬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푸나푸티 섬에 있어요.

“마누아, 꾸물거릴 시간 없어! 어서 네 방 짐부터 꺼내렴!”

이른 아침부터 어수선하죠? 이사하는 날이라서 그래요. 이 집에 산지 6개월도 채 못 되었는데 이사를 가려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우리 식구는 지난 2년 사이 세 번이나 이사했어요. 오늘이 네 번째 이사지요. 왜 이렇게 이사를 자주 가는지 궁금하다면 방바닥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어때요? 발등을 덮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죠? 아마도 십 중팔구 방에 이렇게 물이 들어찬 이유를 홍수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올여름 투발루에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답니다. 발등을 덮은 물은 빗물이 아니라 짜디짠 바닷물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투발루는 해마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땅이 바닷물에 잠기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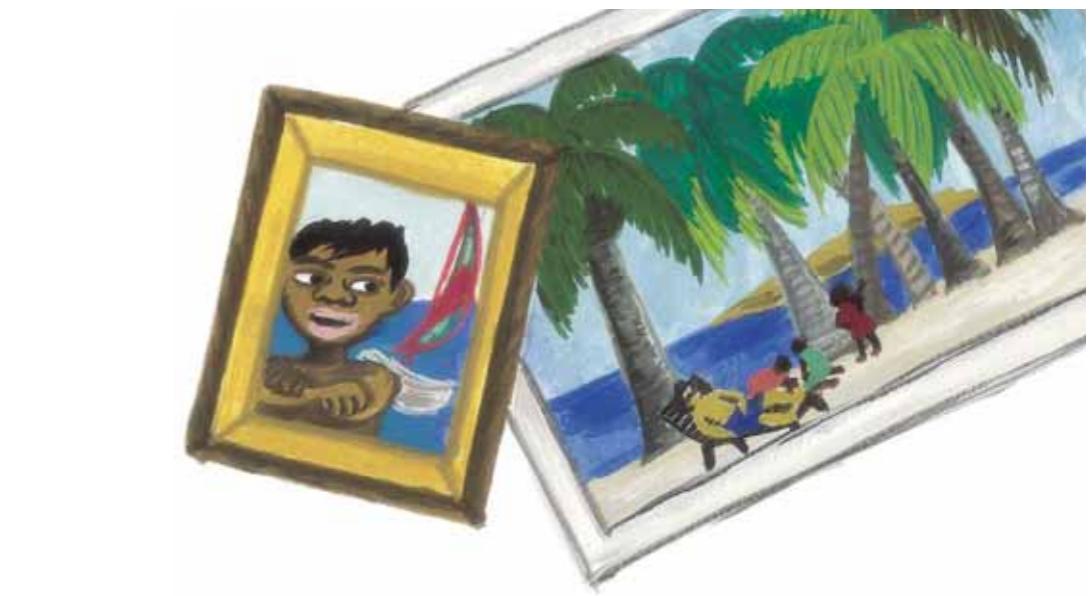
투발루의 평균 해발 고도가 3.5~4미터 정도인데 해수면 높이는 3.4 미터나 되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종잇장처럼 얹은 투발루가 아슬아슬하게 떠 있는 셈이지요.

## 또인동어리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라파 할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 살던 투발루와 지금의 투발루가 너무나 다르다고 하세요. 예전엔 아홉 개의 섬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어서 섬과 섬 사이를 걸어서 다닐 수 있었대요.

그런데 섬들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씩 바닷물에 잠겨 이제는 배를 타지 않으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되어 버렸다는군요.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사빌리빌리 섬은 거의 물속에 잠겨 버렸고, 이제는 아주 작은 산호 더미만 남아 있어요.

언젠가 나는 라파 할아버지께 사빌리빌리 섬의 최후를 여쭤 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금세 두 눈동자가 벌겋



게 젖어 들더니 먼 바다를 바라보며 그날을 떠올리셨어요.

“한밤중에 폭풍우가 몰아쳤단다. 섬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대단했지. 그 밤을 어떻게 견뎠는지 지금 생각해도 눈앞이 아찔해. 한데 다음 날 폭풍우가 물러간 후에 난 더 무서운 광경을 보게 되었단다.”

“어떤 광경이었는데요?”

“성냥갑 속의 성냥개비처럼 섬을 빼곡하게 메우고 있던 야자나무가 한 그루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렸더구나.”

나도 얼핏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투푸카 섬에 간 적이 있는데요, 아, 이 사진 한번 볼래요? 투푸카 섬의 야자나무 숲에서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나무 기둥에 부채 모양의 이파리가 우산처럼 생긴 야자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는 게 참 멋진 곳

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 울창한 야자나무 숲을 볼 수가 없어요. 대신 해안가에 바닷물에 젖은 야자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쓰러진 채 죽어 가고 있지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시원한 그늘과 맑은 공기를 만들어 주던 나무들한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해안가에 쓰러진 나무들을 볼 때마다 라파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누아! 아직도 방 안에 있는 거야? 꾸물거리면 우리끼리 가 버릴 거다.”

“네, 곧 나가요!”

이삿짐이라야 별것 없어요. 웃가지와 책만 챙기면 돼요. 그리고 정들었던 방에 인사를 하고 나면 끝이죠.

현관 앞에 세워 둔 작은 손수레에 실린 짐이 우리 집의 이삿짐 전부예요. 가구란 가구는 죄다 짠물에 잠겨 썩어 버려서 새집으로 가져갈 만한 멀쩡한 세간이 남아 있질 않아요.

“빠진 짐은 없겠지?”

“챙길 거나 있어야 말이죠.”

이삿짐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표정이 슬퍼 보이네요.

아참, 깜빡한 게 있어요. 벽에 걸어 둔 오빠 사진을 그냥 두고 나왔지 뭐예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짙은 눈썹, 굵게 쌍꺼풀 진 눈, 동글동글 복스러

운 코, 두툼한 입술. 나의 하나뿐인 오빠, 티바우예요. 나이 차이가 많아 나는 동생을 퍽이나 귀여워해 주던 오빠는 7개월 전에 저세상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오빠를 빼앗아 간 것은 킹타이드(King Tide)란 녀석이었어요. 킹타이드는 해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큰 11월부터 다음 해 2월경에 밀려드는 큰 밀물이에요.

올 2월에도 킹타이드가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킹타이드는 마치 성난 맹수가 울부짖듯 해안가를 덮쳐 왔죠. 마을 사람들은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가능한 한 높은 지대를 향해 달렸어요. 집과 세간이 잠기는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요. 당장 목숨을 구하는 일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에 우린 달리고 또 달렸어요. 간신히 높은 봉우리에 올라 몸을 피하고서야 우리는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그 짧은 시간에 마을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어요. 집들은 거센 파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미처 피신시키지 못한 가축들은 물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도망치다 파도에 휩쓸린 마을 사람들의 시신도 곳곳에 널려 있었지요. 그리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티바우 오빠도 부서진 나룻배 파편을 잡고 바위틈에 끼어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오빠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오빠를 잃은 후 엄마는 한 달 가까이 정신을 놓으셨어요. 아빠는 평소 냄새만 맡아도 취하는 술을 병째 마시며 소리 내어 우셨지요. 나도

한동안 바다를 볼 때마다 물에 젖어 있던 티바우 오빠의 창백한 얼굴  
이 떠올라 몸서리를 쳐야 했답니다.

킹타이드를 겪은 후 우리 가족은 도망치듯이 푸나푸티 섬으로 이사  
를 왔어요. 지금 사는 바로 이 집으로요. 아빠는 이 집이라면 해안가와  
거리가 멀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웬걸요! 땅속에서도 바닷물이 솟아오른다는 사실을 왜 몰랐  
을까요?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방바닥이 놋눅해지더니  
곧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 지금은 발목을 덮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지  
뭐예요. 이런 집에 오빠를 놔두고 갈 뻔했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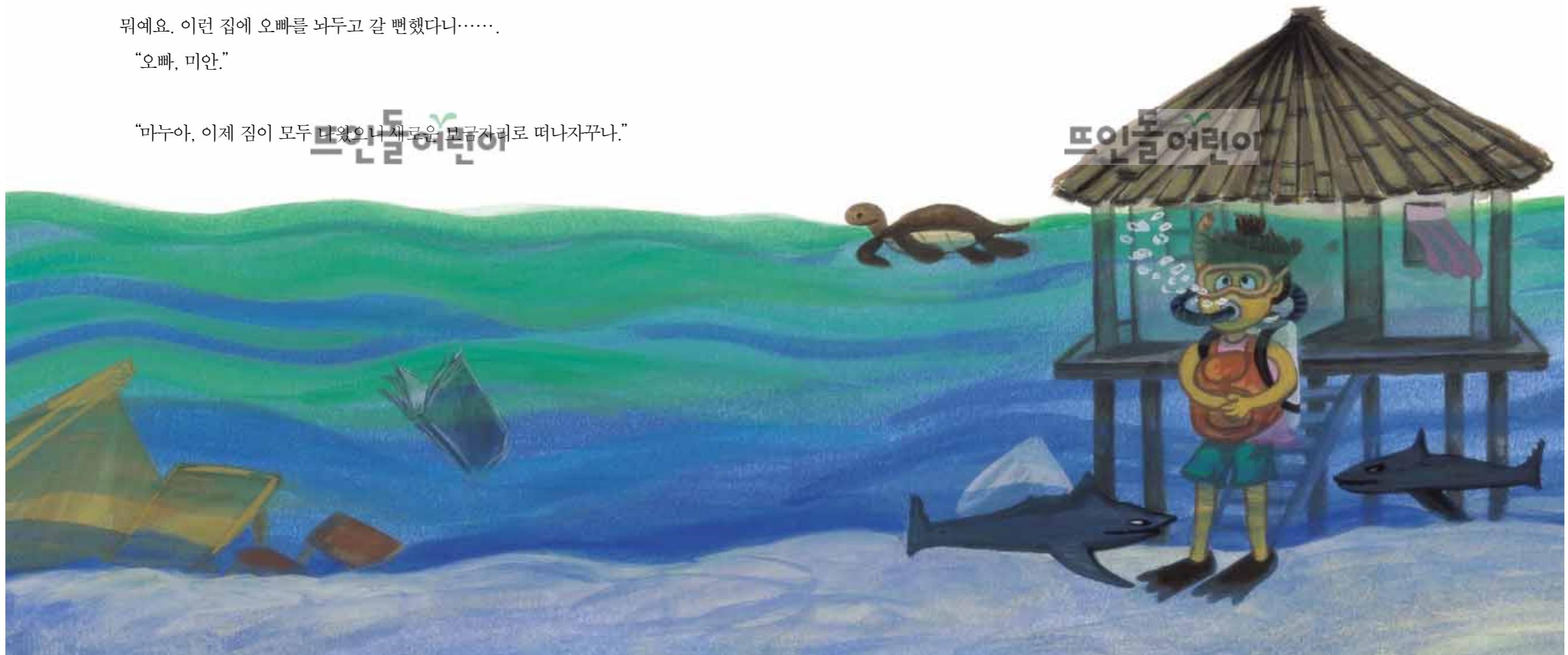
“오빠, 미안.”

“마누아, 이제 짐이 모두 나왔으니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나자꾸나.”



아, 부모님이 얼른 떠나자고 부르시네요. 그런데 나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비록 6개월뿐이었지만 정이 많이 든 마을이거든요.  
아니, 그것보다는 이 마을의 지금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더 머뭇거려져요.

반년 동안 마을은 참 많이 변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마을  
해변에는 널따란 모래사장이 있었어요. 나와 친구들은 모래사장 위에  
서 하루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공놀이를 하며 놀았지요.



그런데 한차례 큰 홍수가 휩쓸고 간 뒤 모래사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 마을 곳곳에 바닷물이 차오른 웅덩이가 생겼어요. 잔디밭에도 바닷물이 보글보글 거품을 일으키며 올라와 어느 한 곳 멀쩡한 구석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어요.

아마 몇 달이 지나 이 마을에 다시 오면 나는 새로운 풍경으로 변해버린 마을을 보게 될 거예요. 어쩌면 마을이 물에 잠겨 아예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겠지요.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건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두 분 모두 끌던 수레를 멈추고 마을을 눈에 새기고 계시네요.

“아빠, 이제 우린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야 여기보다 지대가 높은 곳이지.”

“만약 그 마을도 물에 잠기면요?”

“그럼 또 더 높은 지대를 찾아 이사를 가야겠지.”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땅이 남지 않게 되면요?”

“그땐…… 그땐 말이지…….”

아빠는 더는 대답을 하지 못하십니다. 멈추었던 수레를 다시 끌고 갈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빠가 못한 대답을 짐작할 수 있어요. 투발루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안 그래도 요새 이웃 나라로 이민 가는 집이 부쩍 늘었어요. 말로는 일자리를 구하러 떠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란 걸 우린 모두 알고 있지요. 며칠 전에도 친구 무니미네 가족이 뉴질랜드로 떠났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무니미는 내 손을 잡고 한참을 울먹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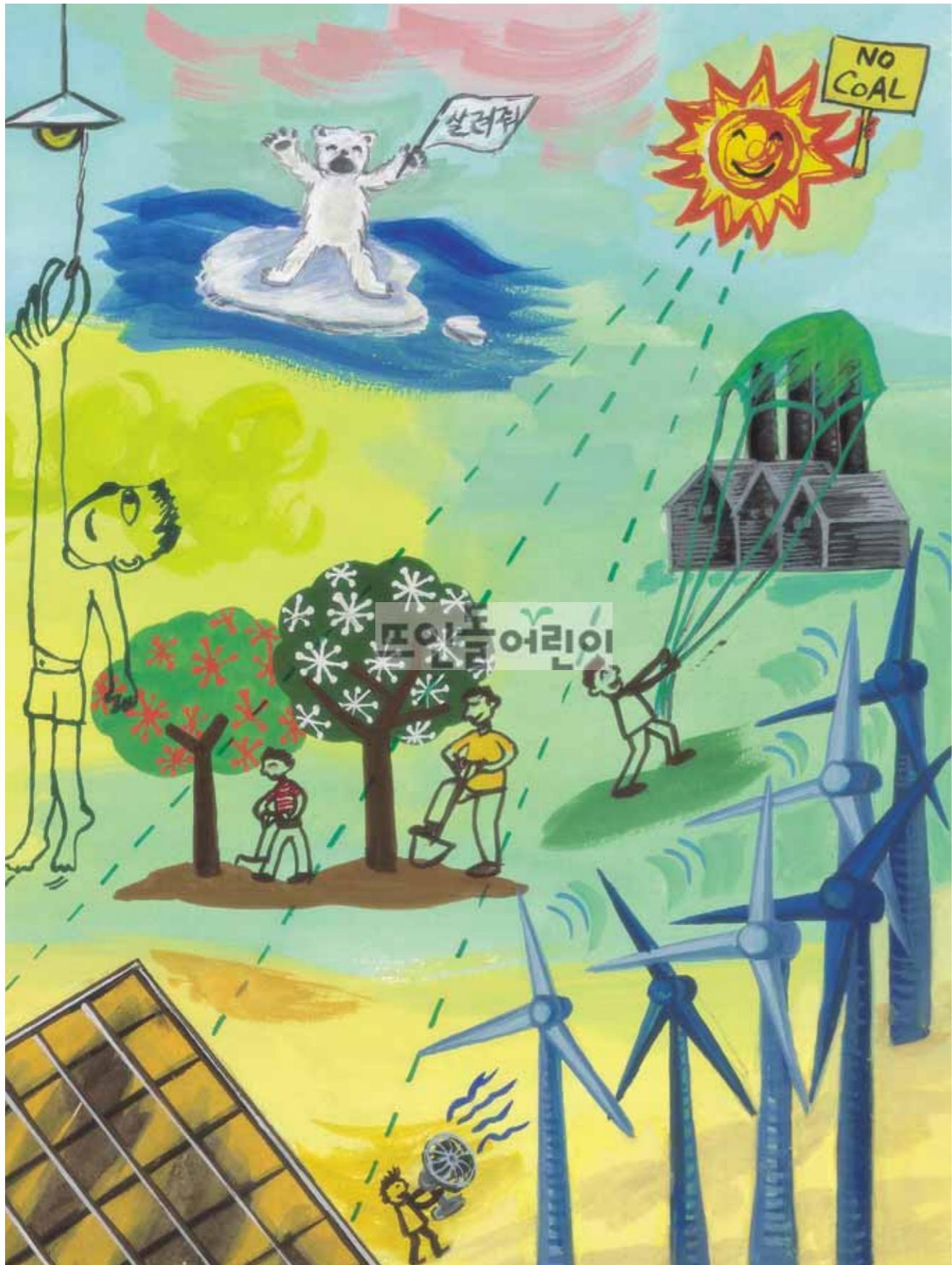
“마누아, 방학 때 꼭 투발루로 놀러 올게.”

“그래, 꼭 와야 해. 우린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비행기가 떠나는 순간, 나는 무니미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없으리란 걸 알았어요. 무니미네 가족은 다시는 투발루로 오지 않을 거예요. 그건 무니미도 알고 있겠지요.

나는 투발루가 좋아요. 땅도 작고, 천연자원도 없어 가난하고, 부자나라의 원조를 받으며 근근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투발루가 좋아요. 태풍이 불 때마다 마을이 온통 바닷물에 잠겨 버리고, 자고 일어날 적마다 방 안에 들어찬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도 나는 투발루가 좋아요. 투발루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내 나라이니까요.

만약 이 세상 어딘가에 마법의 지팡이를 가진 요술쟁이가 살고 있다면 딱 한 번만 내 부탁을 들어줄래요?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투발루를 제발 구해 주세요!



투발루를 구해 달라는 마누아의 소원을  
들어줄 요술장이는 누구일까요?

2001년 투발루는 국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 국토의 10퍼센트가 물에 잠겼으며, 10년 후에는 해수면이 59센티미터 이상 올라갈 것이고, 100년 후에는 세계지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거라는 위기감이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했지요.

이 충격적인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많은 나라들이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갖고 국제 회의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요.

그 결과,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은 온실가스이며, 이것을 줄이려면 산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선진국이나 개발 도상국들이 될 수 있는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당장 자기 나라에 닥친 상황이 아니어서인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답니다. 산업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폐해를 투발루가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지요.

그동안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을 막고자 전 국민이 최선을 다했습니

다. 땅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으려고 해안가에 열심히 나무를 심었고, 온실가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통행을 제한하고 걸어 다녔지요. 그러나 지구 온난화가 어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때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선 것  
이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입니다.

그린피스는 현실적인 대책 없이 말로만 끝나고 마는 회의를 비판하며,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라는 것이지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

으면 그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투발루를 비롯한 저지대 섬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걸 막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답니다.



2009년 12월에는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그린피스

회원들이 사신(죽음의 신) 분장을 하고 낚을 든 모습으로 나타나 지구 환경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지요.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은 전 세계인들에게 '지구라는 한집에 사는 우리 스스로가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실천으로 바뀌는 순간, 투발루는 가라앉는 걸 멈추지 않을까요?

깨끗한 지구,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위한 조용한 행동

## 그린피스

### 그린피스는 어떤 곳인가요?

그린피스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세계적인 환경 단체입니다. 인류와 환경에 해를 끼치는 핵 실험을 반대하고,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물을 보호하며, 각종 환경 파괴를 막는 일에 힘쓰고 있지요. 이와 함께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이나 정부에 항의하며 환경 범죄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971년 미국이 알래스카의 암치키 섬에서 핵 폭발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캐나다의 환경보호운동가 12명. 그들은 직접 그곳에 가서 실험 중지를 요구했지만 주운 날씨와 해안경비대의 방해로 29일 만에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미국의 핵 실험을 비난했어요.



결국 미국은 '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환경보호운동가들은 그린피스라는 환경 단체를 만들고 환경 보호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북극곰 분장을 하고 지구 온난화를 경고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그린피스 회원

### 어떤 활동을 하나요?

그린피스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핵무기

실험 반대운동을 꾸준히 벌이는 한편 야생동물 보호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고래잡이 반대운동을 벌여 고래 멸종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가죽이 벗겨져 죽어 가는 새끼 바다표범을 카메라에 담아 인간이 동물에게 저지르는 잔인함을 전 세계에 고발했지요.

근래에는 지구 온난화를 경고하며 남극을 보존하는데 힘을 쏟고 있어요. 그린피스는 이런 위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래 사냥을 중단하라!"  
그린피스는 고래 멸종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그린피스를 '비폭력 단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린피스 회원들은 어떤 상황이나 위험 속에서도 무장을 하지 않으며 폭력을 쓰지 않는답니다. 대신 '직접적이고 비폭력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뜻을 전해요. 가령, 바다에 유독 물질을 흘려보내는 공장의 굴뚝에 올라가 반대의 뜻을 적은 현수막을 걸어 놓는다든지, 핵 실험이 진행될 위험한 구역에 들어가 침묵 시위를 벌이는 방식이지요. 이 같은 행동은 신문에 보도되고, 환경 파괴에 대항하고자 하는 여론을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론은 정부나 국제 단체들에게 영향을 끼쳐 환경을 위한 바른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  
그린피스 [www.greenpeace.org](http://www.greenpeace.org)  
녹색연합 [www.greenkorea.org](http://www.greenkorea.org)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http://www.kfem.or.kr)



# United Nations

| 국제연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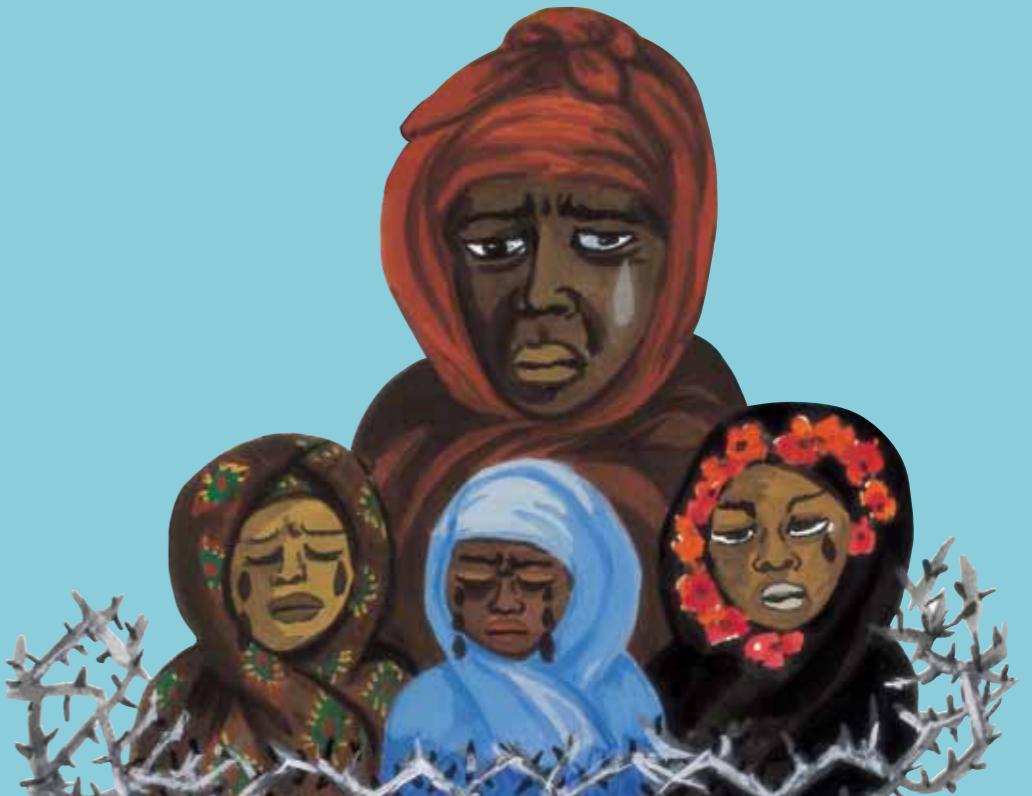


나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코스알리 할머니의 오두막집으로 왔어요.  
이 오두막집은 내게 죽음의 집으로 기억되는 곳이에요.  
이 집에 들어갔던 첫째 언니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 나왔고,  
셋째 언니는 소나기처럼 피를 흘리고 가고 말았어요.  
이제…… 이제 내 차례예요.

뜨인돌 어린이

전통이라는 이름의 꼼찍한 폭력, 할례

뜨인돌 어린이



**도와주세요!**

그날의 일은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도 모든 것이 또렷하게 기억 속에 담아 있지요. 지우고 싶은 기억은  
절대로 잊히지 않는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은 내 여덟 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집 앞에서 친구들과 소꿉놀이  
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부르셨지요.

“아르다, 엄마랑 잠깐 어디 좀 갈까?”

하루 세 끼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처지라 생일 선물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선물을 기대하고 있  
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따라가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게  
느껴졌지요.

그런데 엄마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내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

어요.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코스알리 할머니의 오두  
막집이었거든요.

“아르다, 오늘 여기서 네 생일 선물로 성인식을 치러 줄 거란다.”

엄마의 말을 듣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금부터 내게 벌어질  
일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맙소사! 이런 생일 선물은 절대 환  
영하지 않는다고요.

코스알리 할머니의 오두막집은 내게 ‘죽음의 집’으로 기억되는 곳이  
에요. 어느 날 엄마 손에 이끌려 오두막집에 들어갔던 첫째 언니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시체로 변해 나왔고, 셋째 언니는 집으로 돌아온  
후 소나기처럼 피를 쏟다가 이를 만에 눈을 감고 말았거든요. 또 나와  
제일 친했던 동갑내기 친구 슈크리도 오두막집에 간 이후로 다시는 만  
날 수 없었고요.

**또인돌어린이**

내가 눈치챈 것을 안 엄마는 갑자기 내 손을 꽉 쥐고는 오두막집 안  
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코스알리 할머니와 동네 아줌마 두 분  
이 앉아 계셨어요. 나를 보자마자 밝은 표정을 짓는 걸 보니 날 기다리  
고 있었나 봐요.

내 시선은 이내 코스알리 할머니 앞에 놓인 물건에 꽂혔어요. 쟁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은 은색 날이 차갑게 빛나는 칼과 뾰족한  
가위, 바늘, 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약초들이었어요. 내 머릿속  
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어요.

‘여기서 도망쳐야만 해!’

하지만 엄마가 내 양쪽 어깨를 힘껏 잡고 있어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바닥에 깔린 낡은 담요 위에 강제로 나를 눕혔어요. 그러자 두 아줌마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내게로 달려들어 발 벼둥치는 다리를 벌렸어요.

“아악! 싫어요. 나갈래요. 제발 나가게 해 줘요!”

“아르다, 겁먹지 마라. 금방 끝날 거다.”

코스알리 할머니는 구불구불한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손에는 공기도 갈라 버릴 것처럼 날카로운 칼이 쥐어져 있었지요. 난 엄마를 바라봤어요. 지금 내 편이 되어 줄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서 날 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돌려 내 애처로운 눈빛을 애써 피했어요. 그러고는 기다란 스카프로 내 두 눈을 가렸어요.

눈앞은 곧 어둠으로 변했고 보이지 않는 공포가 스펜지에 물이 스며들 듯 몸속 곳곳으로 퍼져 나갔어요. 내 심장은 빨래를 힘껏 쥐어짜는 것처럼 조여들었어요.

나는 두 아줌마가 강제로 벌린 다리를 오므리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코스알리 할머니가 내 다리 앞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난 뭔가 말을 해야 했지만 어쩐 일인지 말이 목구멍 안에서 빙빙 돌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말도 아니고 울음도 아닌 소리가 내 입에서 흘러나왔지요.

“아, 으어…….”

드인돌여리이



“그 입 닥치지 못하겠니?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데 누가 소리를 질러!”

코스알리 할머니가 매섭게 꾸짖자, 엄마가 내 눈을 가리고 남은 스카프 자락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벌어졌어요.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느낌과 함께 내 다리 사이의 가장 예민한 살이 도려졌어요. 순간, 온몸이 여러 갈래로 찢겨지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머리끝에 전해지며 나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집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누워 있는 요와 이불은 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식은땀으로 온몸이 끈적끈적했어요. 물론 끔찍한 고통도 함께였지요.

나는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숨만 쉬여도 온몸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스며들어와 머리칼이 쭈뼛거렸어요. 그러나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었기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나는 그 상태로 요 위에 누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게 해 주세요.”

하지만 누구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난 이렇게 오늘도 살아 있으니까요.

그날 내가 받은 시술은 ‘할례’였어요. 할례는 여성의 성기(생식 기관)

일부분을 잘라 내고 소변과, 생리를 할 때 피가 흘러나올 만큼의 작은 구멍을 남겨 놓고 다시 훠매는 시술이에요. 물론 마취 같은 건 기대할 수도 없어요. 여자라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신성한 의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말없이 참아 내야만 한대요.

할례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소말리아에 사는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우리 마을에서는 대체로 네 살에서 열두 살 사이에 할례를 치러요.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기 때문에 누구도 할례를 피해 갈 수 없답니다.

내가 피를 흘리며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동안, 엄마는 내 옆을 지켜 주셨어요. 며칠 동안 까무러쳤다 깨기를 반복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어느 날이었어요. 나를 내려다보는 엄마의 눈에서 유리알 같은 눈물이 투둑투둑 떨어졌어요.

“우리 딸, 많이 아프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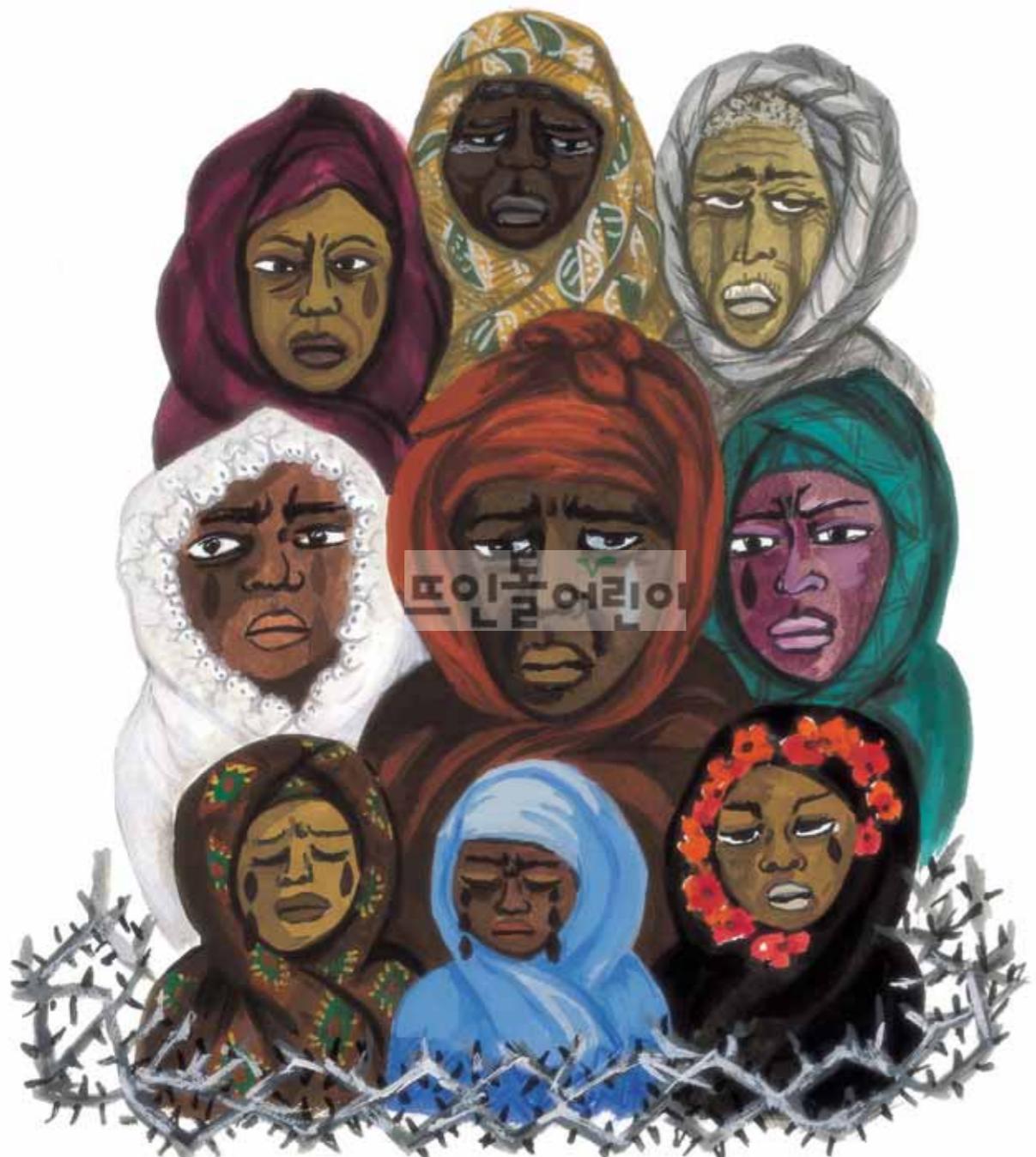
나는 엄마가 너무 밀고 원망스러워서 고개를 돌렸어요. 할례를 받을 때 내 애처로운 눈빛을 매몰차게 외면했던 엄마처럼요.

“엄마도 너만 한 나이 때 할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아.”

“그런데 왜 저한테까지 이런 고통스러운 걸 시켰어요?”

“널 위해서였어. 널 좋은 곳으로 시집보내기 위해서…….”

할례와 시집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소말리아에서는 할례가 성 경험 이 없는 숫처녀라는 증표로 알려져 있어요. 할례를 해야만 순결을 지킬 수 있고, 할례를 한 여자만이 순결하다고 여기고 있지요. 그래서 할



례를 하지 않은 여자는 평생 ‘더럽고 불결한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해요.

남자들은 할례를 하지 않은 여자는 방탕한 짓을 많이 하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신부로 데려가지 않아요. 또 관습을 어긴 죄로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받아야 해요. 그 때문에 모든 여자들이 할례를 두려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날 위해 할례를 시켰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마도 할례의 피해자예요. 할례 때문에 다섯 딸 중 둘이나 잃었으니 말이에요. 첫째 딸은 시술 도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셋째 딸은 소독도 제대로 안 된 더러운 도구로 시술을 받다가 감염되어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 자신도 할례 때문에 평생 우울증을 앓고 있지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낸 본 엄마가 나에게 또다시 그 끔찍한 일을 시킬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시킬 수밖에 없었을 엄마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기에 난 더는 엄마를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할례 의식을 치르고 한 달쯤 지나자 상처 주변이 통통 부어올랐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멈췄겠지 싶었던 피도 다시 쏟아져 나왔고요. 할례 의식을 치를 때만큼 통증이 심했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우리 마을 여자들은 모두 이런 고통쯤은 당연히

이겨 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는 아침저녁으로 약초를 곱게 빻아 상처 부위에 올려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도 그랬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고통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골았던 상처는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가라앉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성기를 좁게 꿰맸기 때문에 소변을 보려면 30분 이상씩 걸렸고, 소변 줄기가 나올 때마다 바늘로 한 땀 한 땀 살을 뜨는 것처럼 아팠어요.

생리를 하고부터는 할례를 치르던 그날과 같은 통증을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느껴야 했어요. 피가 밖으로 잘 흘러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게 당연한 거래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옥에 다녀와야 했어요. 그때마다 평생 이 고통을 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 뜨인돌 어린이

일찍 결혼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 보면 결혼한 후에는 더욱더 괴롭다고 해요. 작년에 결혼해서 첫 아이를 임신했던 친구 압디는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배속의 아기가 할례 때 꿰맨 곳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압디는 일주일 내내 진통을 하다가 결국 병원 문턱에도 가 보지 못한 채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는 내 차례예요. 한 달 후에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거든요. 나보다 스무 살이나 많은 아저씨의 두 번째 부인으로 가야 한답니다. 나도 결혼을 하면 친구들처럼 아저씨와 잠자리를 할 때마다 고통으로 괴로워하겠죠. 또 아이를 임신하면 압디처럼 목숨을 건 출산을 할 테지요. 어쩌면 아이를 낳으면서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또 배속에 든 아기는

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지요. 만약 운 좋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고통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만약 내가 딸을 낳더라도 하면 어쩌나요? 할머니가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엄마가 내게 했던 것처럼, 나도 내 딸에게 내가 겪은 그끔찍한 고통을 또 똑같이 당하게 해야 하나요? 아무도 원치 않는 이 죽음의 의식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 뜨인돌 어린이



드안들 어린이  
할례가 영원히 사라지길 바라는  
아르다의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얼마 후 아르다는 결혼 준비를 위해 엄마와 함께 모가디슈 시내로 나갔습니다. 사실 아르다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처럼의 시내 나들이가 반갑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내에서 뜻밖의 광경을 봤어요. 글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시내 한가운데에서 여성 할례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

국제연합

아니겠어요?

아르다는 엄마의 눈을 피해 사람들이 나눠 주는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꼬깃꼬깃해진 전단지를 펼쳐 보았어요. 하지만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아르다는 전단지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 단 한 글자도 읽을 수가 없었지요.

아르다는 아무도 몰래 같은 마을에 사는 사에다 아줌마에게 갔어요. 아줌마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할례를 반대하고 글자를 아는 분이거든요. 아줌마는 반갑게 아르다를 맞이하고는 전단지를 읽어 주었어요.

전단지에는 소말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행해지는 할례 관습의 끔찍한 실태와 그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또한 할례라는 악습을 폐지하여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을 지켜 주자는 내용도 담겨 있었지요.



알고 보니 낮에 시내에서 전단지를 나눠 준 사람들은 국제연합(UN : 유엔)이라는 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르다는 아줌마의 도움을 받아 할례로 고통 당하는 어린이들을 도와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국제연합에 보냈어요.

국제연합에서는 편지를 받자마자 답장을 보내왔어요. 지난 수년 동안 국제연합에서는 여성 할례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뿌리 뽑자는 캠페인을 꾸준히 벌여 왔고, 그 결과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할례를 폐지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다의 마을을 방문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적혀 있었어요.

며칠 후 국제연합에서 마을을 방문했어요. 마을 어른들은 이들이 할례 관습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나 국제연합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과 끈질긴 설득에 굳게 닫아걸었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마을 어른들은 밤마다 컴퓨터에 모여서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누었어요. 국제연합 직원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은 마을 여자들이 오랫동안 숨겨 왔던 할례로 말미암은 고통과 피해를 속시원히 털어놓았지요.



뜨겁도록 어려워

그제야 비로소 할례의 고통을 알게 된 남자들은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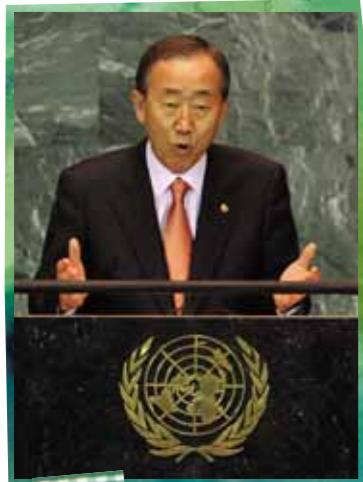
열띤 토론이 한 달 가까이 오간 후 마침내 마을에서 할례 의식을 폐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날 마을의 모든 여자들은 가슴 벅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소식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르다와 친구들이 국제연합의 후원으로 수술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변을 볼 때나 생리를 할 때 아프지 않고, 아이를 낳을 때도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던 날, 아르다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른이 되면 할례를 없애는 일에 앞장설 거야.”

## 국제연합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국제연합은 어떤 곳인가요?

세계 각국의 신문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인류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실립니다. 어느 곳에서는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나 전쟁이 발발하고, 어느 곳에서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으며, 어느 곳에서는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환경, 무역 등 갖가지 문제의 현장 속에 가장 먼저 달려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바로 국제연합(유엔 : United Nations)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위해 국제연합은 수십 개의 산하 기구를 두어 각자의 임무를하도록 하고 있어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 UNESCO), 세계인의 건강을 지켜 주는 세계보건기구(WHO), 경제 위기에 처한 나라에 외화를 빌려 주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국제연합아동기금(유니세프 : UNICEF)은 국제연합의 특별 기구입니다.

### 국제연합과 국제연맹은 어떤 관계인가요?

국제연합과 국제연맹은 아우와 형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다시는 그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목표를 두고 1920년에 설립되었어요. 이후 국제연맹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벌였지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

다.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은 물론 중국,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까지 확대되어 그 피해가 더욱 커집니다. 세계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보다 더 강력한 국제기구를 필요로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1945년에 51개국 대표들이 모여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목표로 한 국제연합을 만들었어요. 이에 따라 비슷한 성격의 국제연맹은 해체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와 국제연합은 깊은 인연이 있다던대요?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제연합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때 큰 인연을 맺은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연합의 16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같은 해 북한도 160번째 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했지요.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국제연합의 산하 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외화를 빌려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대한민국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 국제연합의 산하 기구들

국제연합 [www.un.org](http://www.un.org)

국제통화기금 [www.imf.org](http://www.imf.org)

유네스코한국위원회 [www.unesco.or.kr](http://www.unesco.or.kr)

유니세프한국위원회 [www.unicef.or.kr](http://www.unicef.or.kr)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 본부 앞의 총 조각상.  
총부리를 둑어 전쟁과 폭력을 없애고  
평화를 지키자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흙탕물입니다.  
돼지와 소가 쌈똥오줌이 섞인 더러운 물이지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순물이 둥둥 떠다니기도 하는군요.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고요  
우린 매일 이 물을 마시고 삽니다.

## 재앙의 물을 마시는 아이들

뜨인돌 어린이





“사무엘, 그만 일어나야지.”

꿈결에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나는 좀처럼 눈이 떠지질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줄릴 때의 눈꺼풀이라는 말이 맞나 봐요. 밤새 귓가에서 윙윙대는 극성스런 모기 떼에 시달리다가 새벽녘에 간신히 잠들었더니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런 날은 나를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가 도리어 자장가처럼 들려요.

내가 도통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내 어깨를 잡고 흔드시네요. 아, 이제는 정말 눈을 떠야겠어요. 호롱불도 없는 침침한 웸막 집에서 아직 시력이 남아 있는 한쪽 눈으로만 보이는 엄마의 모습은 마치 길고 가느다란 쇠꼬챙이 같습니다. 보름 넘게 설사병을 앓으시더니 눈에 띄게 마르셨군요.

그런데도 엄마는 매일 아침 동이 터 올 무렵에 남의 집 허드렛일을

하러 나가십니다. 온종일 일을 하고 해가 다 기운 저녁 무렵, 어깨가 축 늘어져 돌아오는 엄마를 보면 코끝이 찡해 와요. 그래도 엄마는 힘든 내색 한번 안 하고 하루 품삯으로 얻어 온 음식을 가족들 앞에 내놓습니다.

앗! 지금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누워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할 일이 잔뜩 쌓여 있는데 너무 꾸물거렸어요. 오늘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강가에 가서 제리깡에 물을 한가득 길어 오는 거예요.

윔막 입구 안쪽에 천으로 덮어 놓은 이 20리터짜리 노란색 물통이 제리깡이에요. 지난 두 달 동안 부족장님 댁 염소 떼를 돌봐 주고 받은 품삯으로 샀지요. 제리깡은 도둑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물건이라서 이렇게 집 안에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해야 해요.

**뜨인돌 어린이**



강가에 가기 전에 먼저 마을 공터에 있는 우물부터 들여다봐야겠어요. 오늘쯤은 혹시 우물에 물이 고여 있을지도 몰라요. 저기 부족장님 이 우물을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부족장님, 오늘 우물물은 어떤가요?”

“어휴, 들여다보나 마나야. 다섯 달째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니 우물 에 물이 고일 턱이 없지.”

“그래도 한번 볼래요.”

역시나! 오늘도 여전히 우물은 바싹 말라붙어 있네요. 대신 고약한 냄새만 진동을 하는군요. 파리랑 모기는 뭐가 좋다고 저런 더러운 곳 에서 윙윙거리는지…….

“언제쯤 물이 고일까요?”

“글쎄다. 우리 코어 마을이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 기 때에는 비가 제법 내려 빗물을 받아 쓸 수 있었는데. 올해는 우기가 왔는데도 빗님이 꼼짝을 안 하시는구나.”

내가 사는 코어 마을은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북동쪽에 위치한 마사빗 지역에 있어요. 마을에는 유목 생활을 하는 렌딜렌 부족 민들이 3만여 명 정도 흩어져 살고 있지요.

3~6월은 비가 제법 내리는 우기인데 올해 코어 마을에는 도통 비가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기가 오기만을 눈 빼지게 기다렸는데, 정 말이지 하늘이 협조를 안 해 주네요.

“그럼 별 수 없이 강으로 물을 길으러 가야겠네요.”

“그래, 니가 고생이 많구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강가까지 가는 길은 약 6킬로미터. 100미터 달리기를 60번이나 할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쉬지 않고 꼬박 세 시간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비가 내려 주면 이 먼 길을 가지 않아도 될 텐데……. 내 분풀이는 물을 길으러 갈 때마다 하늘을 한번 째려봐 주는 거랍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나는 주로 아침 여섯 시쯤 물을 길으러 가요. 한낮의 맹볕을 피하려면 일찍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또 오후에는 부족장님 댁 염소 폐를 돌봐 줘야 해서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학교는 언제 가냐고요? 음, 비가 와서 우물에 물이 고이면 다닐 수 있을까요?

당분간 학교에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학교보다 물이 더 중요하니까요. 공부는 안 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아직 어둠이 물러가지 않았는데 사방에서 물통을 들고 오는 여자애 들이 보이네요. 재잘재잘 수다를 떨며 걸어오는 여자애들은 학교 친구 들이에요. 가뭄이 길어지면서 모두들 학교에 못 가고 물을 길으러 다니고 있지요.

그런데 물통을 든 아이들이 죄다 여자죠? 우리 마을에서는 대개 물 을 길어 오는 일을 딸들이 맡아 해요. 우리 집도 누나와 여동생이 번갈 아 가며 물을 길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내가 다녀요. 글쎄, 마을 여자애

들이 물을 길으러 가다가 나쁜 아저씨들한테 험한 짓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지 않겠어요? 누나와 여동생이 집을 나설 때마다 너무 걱정되어서 우리 집의 유일한 남자인 내가 나서기로 했어요. 그리고 요새 누나가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강가까지 가는 길은 여간 힘들지가 않아요.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 모래사막과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세 시간 남짓 걷노라면 다리가 휘청거리죠. 먹은 것도 없이 걷기만 해서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요. 더욱이 난 한쪽 눈이 안 보여서 눈에 힘을 주고 걷다 보면 바늘이 머리를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그래도 강가에 도착하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생각에 참을 만해요.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어요. 일단 목부터 축일까요? 강물을 마실 땐 근처에서 동물이 똥오줌을 싸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해요. 흙탕물이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동물의 시체나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등등 떠 다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요. 또 한 가지!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니까 잠시 숨을 참아야 해요.

이런,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군요. 그래요, 이 더러운 물이 바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먹는 물이에요. 돼지와 소가 쌈 똥오줌이 섞여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순물들이 잔뜩 뒤섞인 이 오염된 물이 말이에요. 우린 이 물에 몸을 씻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해요.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그대로 마시기도 하죠.

우린 이 강물을 ‘재앙의 물’이라고 불러요. 이 물을 마신 사람들 대부분이 병에 걸리거나 죽기 때문이죠. 나도 이 물 때문에 네 명의 가족을 잃었어요.

아빠는 더러운 물에 사는 모기가 옮긴 말라리아에 걸려 3일 밤낮을 높은 열과 오한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고, 큰 형은 콜레라, 작은 형은 장티푸스에 걸려 죽었어요. 태어난 지 일 년도 채 안 된 막내 여동생은 그 작은 몸으로 꼬박 일주일 동안 설사만 하다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났어요.

얼마 전에는 내 바로 위 누나가 몸에서 기다란 벌레가 나오는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하얀 실처럼 생긴 기다란 벌레가 누나의 살갗 여기저기를 뚫고 나오는 병이지요. 벌레는 팔이건 다리건 엉덩이건 가리지 않아요. 어떤 건 길이가 1미터도 넘어요.





## 뜨인돌 어린이

몸에서 벌레가 나올 때마다 누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해요. 그 공포에 가득한 눈빛을 볼 때면 나는 차마 벌레가 징그럽다는 내색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나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두 눈을 질끈 감고 벌레를 잡아 빼 주는 일뿐이지요. 하지만 벌레는 잡아 빼려고 하면 할수록 살갗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해요. 그럴 때 누나는 괴로움에 비명을 지르거나 기절을 하곤 한답니다.

부족장님의 말씀하시기를 누나의 몸에서 나오는 벌레는 ‘기니아충’이라는 기생충이래요. 기니아충은 오염된 물속에 사는데, 사람들이 그 더러운 물을 마시는 바람에 기생충 알이 몸속에 들어간 거래요. 그리고 그 알을 깨고 벌레가 자라서 살을 뚫고 나오다는 거예요. 이 징그러

운 벌레가 뱃속의 내장이나 뇌를 건드리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군요.

과연 누나 몸속에 들어간 기니아충은 어디쯤 살고 있을까요? 벌레가 머리를 뚫고 나오던 날 죽은 내 친구 오토에노처럼 누나의 머리에서 기니아충이 나오는 날, 우리 가족은 누나와 영영 작별을 하게 되겠지요.

나도 눈병을 앓고 있어요. 지난해 여름 왼쪽 눈꺼풀 안쪽에 좁쌀 같은 게 돋아나서 비볐더니 얼마 전부터는 눈동자 위에 허연 막이 생기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 앞이 안 보였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잠도 오지 않았는데 이젠 그럭저럭 견딜 만해요. 코어 마을에서 눈병을 앓는 것쯤은 병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오른쪽 눈도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 위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어지는 것 같아요.

## 뜨인돌 어린이

이게 다 더러운 물 탓이래요. 오염된 물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벼서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로 손만 닦아도 한결 병이 나아질 거지만 어디 깨끗한 물을 단 한 컵이라도 구할 수가 있어야지요.

이 강물을 마시는 한 우리는 모두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 물을 마시냐고요? 그건, 이 물밖에 먹을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도 덜도 말고 딱 하루만 물을 먹지 않고 지내 보세요. 물론 음료수를 마시거나 과일을 먹는 것도 안 돼요. 절대 한 방울도 마시지 말고 참아 봐요.

어때요? 목 마를 때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혀바닥은 가뭄으로 썩썩 갈라진 흙바닥 같고 목구멍은 불에 달구어진 양철 그릇 같지요. 우린 이런 고통을 매일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물도 감사하며 마시고, 물 한 방울도 소중하게 아껴 쓸 수밖에 없어요.

그새 물통에 물이 꽉 찼네요. 이 20리터의 물로 우리 식구는 하루를 버텨야 해요. 한 사람당 5리터의 물로 양치질과 세수를 하고 옷을 빨고 청소까지 해야 해요. 그리고 나면 마실 수 있는 물은 기껏해야 서너 컵 정도지요. 빨리 키가 커지고 힘이 세져서 물통을 두 개씩 들고 다니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자갈투성이 길과 사막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갈 때는 올 때보다 몇 배 더 힘들어요. 무거운 물통 때문에 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다리는 당장 주저앉을 것처럼 후들거리지요.

그런데 이런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이 물을 마시고 더욱더 건강이 나빠질 우리 가족이에요. 나는 더는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이 물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당장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엄마와 누나 그리고 귀여운 여동생에게 재앙의 물을 가져다 주는 나를 용서하세요.



코어 마을의 가뭄은 그 후로도 쭉 계속되었습니다. 물 부족과 오염된 물 때문에 사무엘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코어 마을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트럭에 이상한 기구를 잔뜩 싣고 온 사람들 은 지구 반대편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의 봉사단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월드비전의 후원자들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더 워터풀 크리스마스(The Waterful Christmas)'라는 캠페인을 벌여 기부금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프리카 곳곳에 '희망의 우물파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꼬박 하루를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자원봉사자들은 피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즉시 우물파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부족장님의 지시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을 도왔지요. 사무엘은 솔직히 우물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물값을 받을 게 분명해. 그리고 머지않아 저 우물에도 벌레가 들끓고, 똥오줌이 떠다닐 거야.'

그런데 완성된 우물은 사무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동안 보아 왔던 두레박이 달린 재래식 우물이 아니라 펌프로 물을 끌어 올리는 현대식 우물이었던 겁니다.

글쎄, 우물 위에 설치된 손 펌프를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맑고 깨끗한 물이 쓸쓸하지 않겠어요? 더구나 이 우물은 두꺼운 콘크리트 덤개로 입구를 막아서 더러움에 오염되지도 않는다는군요. 더러운 물만 보면 윙윙거리며 몰려다니던 모기와 파리 폐가 같은 곳이 없어진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의 선물은 또 있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고 설사병과 탈수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안타깝게 여긴 월드비전 후원자들이

물에 녹여 마시는 구강수분보충염(설사병 치료약으로 설탕과 소금을 탄 용액)을 보내 준 겁니다. 물론 기생충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구충제도 빼놓지 않았고요.

우물이 완성되어 펌프에서 물이 쏟아졌을 때 아이들은 너무나 놀라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아이들을 면강까지 물을 길으러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수업을 받으러 다닐 수 있겠지요.

사무엘은 더 이상 물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라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코어 마을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드인돌어린이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국제구호개발기구

## 월드비전

### 월드비전은 어떤 곳인가요?

월드비전(World Vision)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목표로 일하는 국제구호개발기구입니다.



월드비전은 밥 피어스 목사의 어린이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아가 된 어린이들과 남편을 잃은 부인을 돋기 위해 미국인 선교사 밥 피어스 목사와 한국의 한경직 목사가 설립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100여 개의 회원국과 수백만 명의 후원자들과 연결된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로 성장했습니다. 월드비전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세워졌지만 종교, 민족, 성별을 초월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돋고 있습니다.

### 어떤 활동을 하나요?

지구촌 어느 곳이라도 대규모 자연재해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 현장에는 어김없이 월드비전이 함께했습니다. 피해 주민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덜어 주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빨 빠른 도움을 주었지요.

또한 물 부족 국가에 우물 시설을 마련해 주고,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위생과 보건사업을 실시했으며, 주민들이 생각을 깨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마을을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흔, 아동노동, 할례처럼 어린이들에게 부당한 정책이나 악습을 바꾸기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월드비전한국’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월드비전한국의 첫 사업은 6·25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도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 주는 일이었습니다. 육아원 · 영아원 · 맹아원 등의 시설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고, 아동 병원을 세워 무료 의료사업을 펼쳤지요.



'기아체험 24시간'은 전 세계 곳곳에서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모금활동을 벌여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가라앉고 빠른 경제 성장을 거둔 1980년대에는 농촌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1991년부터는 해외 구호활동을 펼쳤고, 1994년부터는 국내 NGO(비정부기구) 중 최초로 북한에 지원사업을 시작했어요. 현재 월드비전한국은 '사랑의 빵', '기아체험 24시간' 등의 모금활동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에게 활발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초의 나눔 저금통  
'사랑의 빵'

# Doctors without Borders



| 국경없는의사회 |

그해 봄에 일어난 전쟁은 내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늘 친구 같았던 아빠도, 봄 햇살처럼 따사롭던 엄마도, 귀여운 여동생도…….  
그리고 이제는 내게 마지막으로 남은,  
살고 싶은 희망마저 내놓으라고 하네요.  
전쟁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빼앗는 잔인한 강도입니다.

전쟁이 빼앗아 간 것들





그해 여름,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내 열 번째 생일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1994년 7월의 어느 날, 일터에 나가셨던 아빠가 느닷없이 집 안으로 달려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지요. 아빠의 오른팔에서 흐르는 피가 마루에 깔아 놓은 카펫에 똑똑 떨어지며 빨간 물방울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서 지하 창고로 숨어요! 샘, 너는 링을 데리고 따라오렴!”

막내 동생을 임신해서 몸이 무거운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아빠의 손에 이끌려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바닥에 엎드려 책을 읽고 있던 나도 후다닥 일어나 여동생 링의 손을 붙잡고 뒤따라갔지요.

네 식구가 모두 지하 계단을 내려오자 아빠는 창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엄마는 아빠의 팔에 흐르는 피가 걱정 돼서 안절부절못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이 상처는 어떻게 된 거죠?”

“투치족이 휘두르는 칼에 베였어. 지금 투치족이 닥치는 대로 후투족을 죽이고 있어.”

나는 그제야 오늘의 이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빠가 말씀하시는 후투족과 투치족은 모두 우리 르완다 사람들이에요. 르완다 국민 중 85퍼센트가 후투족이고, 나머지 15퍼센트가 투치족이지요. 우리 가족은 후투족이에요. 후투족과 투치족은 비록 부족이 다르고 생김새에 차이가 있지만, 수백 년 전부터 르완다 땅에서 함께 살아왔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부족인지 그런 건 따질 필요도 없이 오랜 세월 사이좋게 지내왔지요.

하지만 1916년에 벨기에가 르완다를 통치하면서부터 두 부족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벨기에가 르완다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목적으로 소수의 ‘투치족’이 다수의 ‘후투족’을 지배하는 종족 차별 정책을 펼친 거예요. 게다가 투치족과 후투족이 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기기까지 했지요.

이 때문에 두 부족 간에 갈등이 생겼고, 이 갈등은 1962년에 르완다가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까지도 이어졌어요. 두 부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까스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를 시

한폭탄처럼 불안한 상태였지요.

그러던 1994년 4월, 후투족 출신의 대통령이 비행기 격추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평화가 깨지고 말았어요. 후투족은 이 사건을 투치족이 일으킨 게 분명하다며, 50만 명이나 되는 투치족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 일로 지난 3개월 동안 르완다는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지요.

그런데 지금 투치족이 반격하여 키갈리(르완다의 수도)를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투치족이 우리 후투족을 죽일 셈인 거지요. 하지만 나는 이 상황을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 도대체 지금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후투족이 나빠요, 투치족이 나빠요?”

내 물음에 아빠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글쎄다. 양쪽 다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같은 나라 국민끼리 총칼을 겨누는 건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지하 창고에 숨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만 가끔 바깥 상황을 살펴보러 나갔다 오곤 했지요. 그때마다 아빠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아빠가 바깥소식을 전해 주지 않아도 엄마와 나는 대강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밤낮으로 들려오는 총소리와 비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불을 끄고 숨소리를 죽였어요. 링은 이런 사정도 모르고 밖에 나가 놀자고 보채기 일쑤였지요. 하긴, 그 애는 이제 겨우 다섯 살이니까요.

며칠이 지난 후, 우리 가족은 키갈리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들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식량과 가재도구, 옷가지를 챙겼어요.

아빠는 등에 길쭉하게 말아서 묶은 담요를 짊어지고 양손에는 묵직한 곡식 보따리를 들었어요. 엄마는 무거운 몸에도 불구하고 머리 위에 가재도구를 잔뜩 담은 보따리를 이고 링의 손을 붙잡았어요.

우리 가족은 어두운 밤을 틈타 조용히 지하 창고를 나왔어요. 그리고 까치발을 든 채 조심조심 뒷문으로 향했지요.

그때였어요. 등 뒤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옆집에 사는 콜린스 아저씨였어요. 투치족인 아저씨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린보의 아빠이기도 해요.

드란돌 어린이



“저기다! 샘 가족이 뒷문으로 달아나고 있다!”

아저씨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총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아빠는 아주 잠시 몸을 떨더니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너무나도 슬프고 무서운 순간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 사실을 나는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발바닥에 본드 칠을 해서 땅에 붙여 놓은 듯 꼼짝도 못 하는 내게 엄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샘!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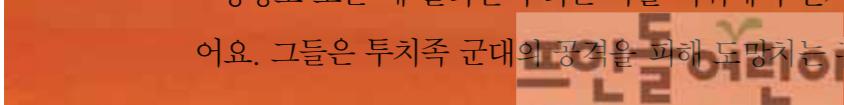
그 순간부터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요. 엄마와 내 손을 잡은 링은 뛰는 걸음을 쫓아오지 못해 거의 매달리듯이 끌려왔어요.

방향도 모른 채 달리던 우리는 마을 어귀에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투치족 군대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는 후투족 피난민들이

었어요. 우리는 무작정 그들을 뒤따라갔어요. 처음에 한 줄이던 행렬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줄, 세 줄로 늘어나더니 점차 거대한 행렬을 이루었어요.

사람들은 서북부 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국경선을 넘어 이웃나라 콩고민주공화국으로 가면 투치족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이 국경선을 넘어갈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조금은 안심시켜 주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피난길, 투치족은 곳곳에서 나타나 난민 행렬을 향해 총을 쏘아 댔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미친 듯이 깊은 숲으로 도망쳐 들어갔어요.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들을 밟고 지나갔지만 미안해할 틈도 없었지요. 투치족의 총격이 멈추면 우리는 다시 이동했어요. 걷



고 또 걸을 뿐이었지요. 머리 위로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에 몸이 익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런 것쯤은 참을 수 있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건 배고픔이었어요. 피난을 떠난 이후 먹는 날보다 굶는 날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종종 지나가는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해 먹기도 했지만, 기껏해야 나무뿌리와 썩은 고구마뿐이었어요.

처음엔 투치족의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날이 갈수록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피난민 행렬이 지나는 길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지요. 나는 내가 저런 모습으로 버려질까 봐 무서웠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엄마와 링의 앙상한 손을 꼭 붙잡았어요.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한여름, 피난민들은 마침내 르완다 국경선을 넘어섰어요.

“드디어 르완다를 벗어났다! 콩고민주공화국에 도착했어!”

“이제 투치족에게 쫓기는 일은 없을 거야!”

사람들은 경충경충 뛰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나는 조금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함께 기뻐해야 할 엄마와 링이 곁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이렇게 내게서 소중한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 버렸네요. 이보다 더 잔인한 강도가 또 있을까요?

링은 피난길에서 쓰러진 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엄마는 해골처럼 깡마른 링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나 곧 눈물을 닦고 내 손을 잡아 이끌었지요. 엄마는 나와 뱃속의 아기를 위해 슬픔을 견디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엄마는 먹은 것도 없이 계속 토하고 피가 섞인 설사를 했어요. 나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바싹바싹 말라가는 엄마의 입술을 적셔 줄 물 한 모금도 없었거든요. 엄마는 내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은 후 영영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나도 엄마처럼 몸이 아팠어요. 구토와 설사가 멈추질 않고 이마는 불덩이가 들어앉은 것처럼 뜨거웠지요. 나는 누군가 내 몸에 뺨대를 끊고 팔다리의 모든 힘을 빼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난민 행렬의 앞쪽에서 기쁨에 차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난민 캠프가 보인다!”

“우린 이제 살았어! 살았다고!”

하지만 나는 두 눈이 자꾸만 감겨 왔어요. 만약 이대로 눈을 감아 버리면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빠와 엄마 그리고 귀여운 링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르완다 국경선을 넘어서는 순간

의식을 잃은 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샘은 르완다의 서북부 국경 지대와 맞닿아 있는 이웃나라 콩고민주공화국에 마련된 난민 캠프로 옮겨졌습니다. 함께 먼 길을 이동해 온 난민들 조차 거들떠보지 않던 샘을 구해 준 이들은 ‘국경 없는의사회’ 소속의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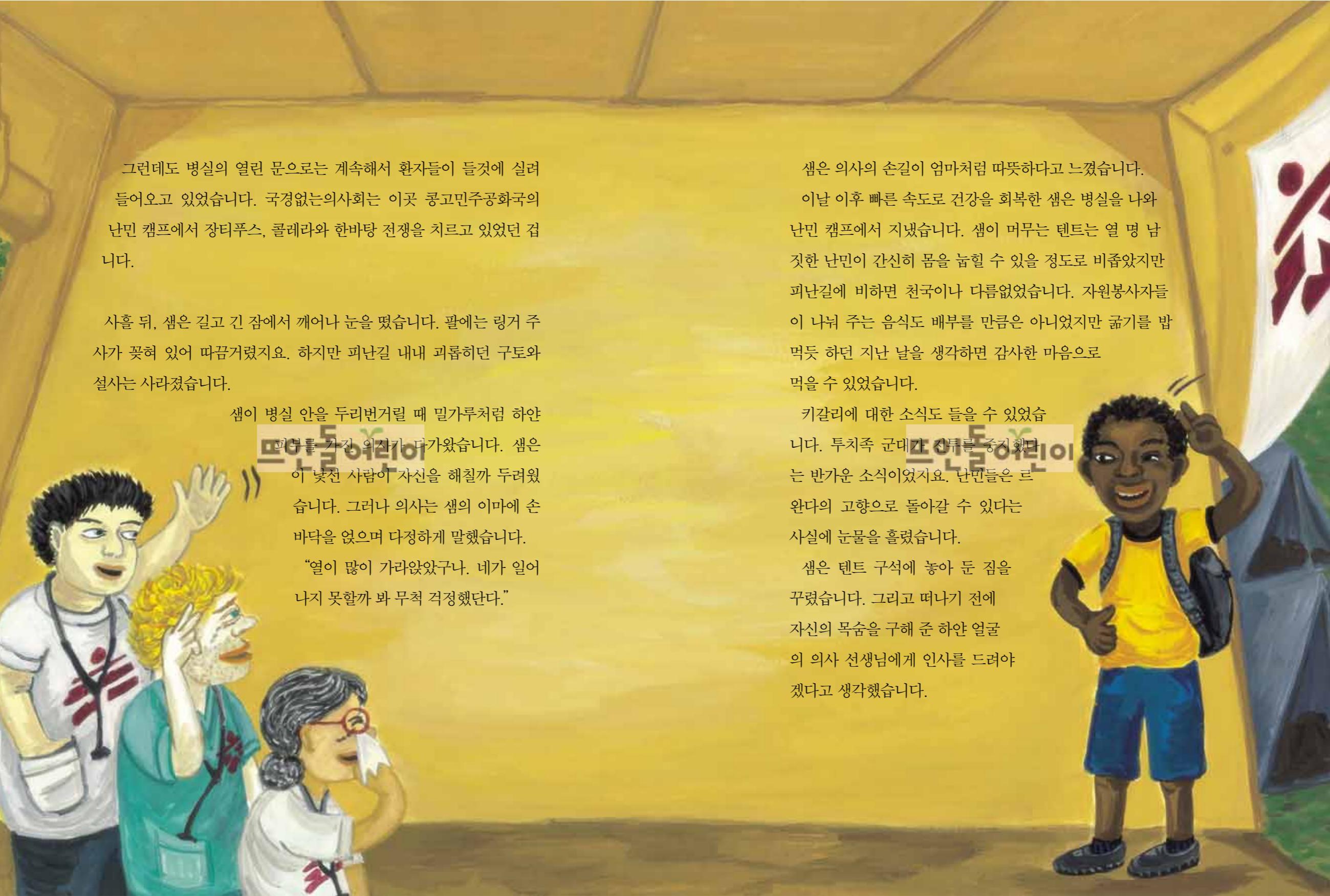
르완다의 내전으로 수십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국경없는의사회가 난민 캠프에 구제 팀과 각종 구호물자를 보낸 것입니다.

난민 캠프에 실려 온 샘은 곧장 임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샘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이 흡사 살아 있는 해골 같았습니다.

샘의 몸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진찰한 의사는 장티푸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샘의 엄마를 길거리에서 죽게 하고, 구토와 설사, 두통으로 샘을 쓰러지게 한 것이 장티푸스 증세였던 겁니다. 장티푸스와 콜레라 등은 난민 대부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샘이 누워 있는 병실 안에는 수십 개의 침대가 놓여 있고, 그 위에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부림치는 환자들이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개 장티푸스나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이었지요.

수십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종종걸음 을 치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실의 열린 문으로는 계속해서 환자들이 들것에 실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곳 콩고민주공화국의 난민 캠프에서 장티푸스, 콜레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흘 뒤, 샘은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팔에는 링거 주사가 꽂혀 있어 따끔거렸지요. 하지만 피난길 내내 괴롭히던 구토와 설사는 사라졌습니다.

샘이 병실 안을 두리번거릴 때 밀가루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샘은 이 낯선 사람이 자신을 해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샘의 이마에 손바닥을 얹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열이 많이 가라앉았구나. 네가 일어나지 못할까 봐 무척 걱정했단다.”

샘은 의사의 손길이 엄마처럼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날 이후 빠른 속도로 건강을 회복한 샘은 병실을 나와 난민 캠프에서 지냈습니다. 샘이 머무는 텐트는 열 명 남짓한 난민이 간신히 몸을 눕힐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지만 피난길에 비하면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눠 주는 음식도 배부를 만큼은 아니었지만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키갈리에 대한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투치족 군대가 진투를 중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지요. 난민들은 르완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샘은 텐트 구석에 놓아 둔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하얀 얼굴의 의사 선생님에게 인사를 드려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백색 가운을 입은 군대

## 국경없는의사회



콜레라와 배고픔으로 죽은 피난민 시체를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옮기고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누구에게든 달려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경 없는’ 단체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는 어떤 곳인가요?

‘국경없는의사회’는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나 자연재해, 기아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달려가 즉각적인 구조활동을 펼치는 의료 단체입니다.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인 상황 등에 상관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누구에게든 달려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경 없는’ 단체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에는 의사만 있나요?

흔히 국경없는의사회에 갖는 오해 중 하나가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단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 외에도 파괴된 의료 시설을 새로 짓고,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예방사업을 하고, 구호물자를 나눠 주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에는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의료진을 비롯하여 영양사, 물자보급 담당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어요. 아참! 세계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에티오피아 국경없는의사회  
치료소에서 한 어린이가  
영양실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 왔나요?

1971년 프랑스 의사들과 언론인 12명에 의해 국경없는의사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첫 활동은 1972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니카라과에 수술 팀을 보내 의료지원활동을 벌인 일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에티오피아 난민을 위한 기아구조활동(1984)을 펼치기도 했고, 르완다의 대량 학살로 인한 끔찍한 상황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기도(1994) 했어요. 1995년에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국경없는의사회에만 입국 허가를 내주어 의료보건소와 병원을 세우기도 했지요. 이런 활동들을 인정받아 1999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꽂히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현장에서  
긴급의료 구조활동을 하는 단체들  
국경없는의사회 [www.mst.org](http://www.mst.org)  
국제적십자위원회 [www.icrc.org](http://www.icrc.org)  
국제적십자사연맹 [www.ifrc.org](http://www.ifrc.org)  
대한적십자사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국경없는의사회와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는 없나요?

국경없는의사회처럼 긴급의료 구조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기구로는 국제적십자사가 있어요. 국제적십자사는 1863년 양리 뒤 낭이 전쟁에서 다치거나 병든 사람을 구호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예요. 국경없는의사회를 창설한 사람들이 국제적십자사 소속으로 활동하던 프랑스 의사들이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보니 국제적십자사는 국경없는의사회의 형님 같은 존재로군요.



| 국제앰네스티 |

제가 총을 쐈습니다.  
칼로 찌른 것도 접니다.  
폭탄을 던진 것도 제가 맞습니다.  
제가 이 두 손으로 사람을 죽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결코 제 뜻은 아니었습니다.

프인돌어린이

열세 살의 사형수

프인돌어린이





“죄수번호 15327 라엘 불다우, 사형.”

판사가 망치를 세 번 두드림과 동시에 나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내 나이 열세 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남은 나이지만, 이제 그런 건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네요.

죄명은 살인죄. 두 달 전인 5월, 나는 수단의 다르푸르 반군 조직인 정의평등운동(JEM) 소속의 병사로 수도 하르툼 근처의 옴두르만 공격에 참여하여 수십 명을 죽인 죄로 체포되었어요.

하긴 내가 사람을 죽인 게 그날뿐만은 아니에요. 지난 2년 반 동안 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지요. 만약 그것까지 모두 합한다면 나는 사형당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짓값을 치를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사형을 확정 짓는 순간 심장이 발바닥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더군요. 염치없게도 나는 마음속으로 사형만은 면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와 함께 사형 선고를 받은 주황빛 죄수복을 입은 소년병들도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걸 보니 나와 같은 심정인가 봐요.

우리는 재판소를 나와 교도소로 이송되는 버스 안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이 아슬아슬한 침묵이 깨진 건 버스가 교도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읊씨년스러워 보이는 회색빛 건물 앞에 내렸을 때, 우리가 ‘블러드 나이프(피의 칼)’라고 부르는 녀석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트리고 만 것입니다.

“드, 들어가기 싫어! 저 안에 들어가면 우릴 끝 줄이고 말 거야!”

사방에서 대포가 터지고 수류탄과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던 녀석이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되어 울다니! 아마도 녀석은 저 교도소가 짧디짧은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되리라는 걸 예감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교도소 복도로 옮겼어요. 그러자 기다란 복도 좌우 벽에 조그맣게 뚫린 창문마다 수감자들이 얼굴을 디밀고 우릴 향해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 악마들아! 너희는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져 버릴 거다!”

“뻔뻔한 살인 기계들! 너희는 사람이 아니야!”

“죽어 마땅한 녀석들! 죽음으로 죽값을 치러라!”

그래요. 그동안 난 살인 기계로 살았어요. 내가 한 일은 오직 사람을 죽이는 일뿐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결코 내가 선택한 일은 아니었다는 걸 믿어 줄 수 있나요?

내가 소년병이 된 것은 열한 살 때였어요. 그날은 내가 학교에서 열린 그림 대회에서 1등 상을 받아 온 날이기도 했지요. 우리 가족은 내가 그린 그림을 보며 불에 구운 염소 고기 요리로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우리나라 수단의 지도를 그린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사는 와우 마을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지도는 아무나 못 그린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오빠, 자랑 좀 그만해. 한 번만 더 하면 백 번 채우겠네.”

쌍둥이 여동생 라니가 입을 빼죽거리며 말했어요. 그때 느닷없이 창밖에서 벌건 불길이 치솟으면서 고막을 터트릴 것 같은 총소리가 울렸어요.

콰앙— 콰콰콰쾅—.

“이런, 반군 단체가 마을에 침입한 모양이군.”

아빠의 낯빛이 순식간에 흉빛으로 바뀌는 걸 보며 나와 여동생은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우리나라 수단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내전을 벌이고 있어요. 아랍계 셈족으로 이루어진 ‘북부 수단’과 아프리카계 함족으로 구성된 ‘남부 수단’으로 갈라져서 20년이 넘게 총칼을 겨누며 싸우고

있지요. 2006년에 국제연합의 중재로 화해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날 마을을 공격한 건 북부 수단의 정부군에 반대하여 싸우는 ‘정의평등운동(JEM)’이라는 반군 단체였어요.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를 하다 만 채 밖으로 나왔어요. 물론 짐을 꾸리거나 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골목을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우릴 향해 총알이 퍼부어졌어요. 순간, 아빠는 날 등 뒤로 보내고 몸으로 막으셨어요. 나는 너무 무서워서 아빠 등 뒤에 고개를 묻고 눈을 꼭 감아 버렸지요.

탕! 탕! 탕! 타탕 탕탕 탕!

잠시 후 장마철의 소나기처럼 퍼부어 대던 총소리가 멈추었어요. 내가 주춤주춤 고개를 들었을 때 아빠는 옆으로 고개를 푹 떨어뜨리며 쓰러졌어요. 아빠의 가슴에는 수십 개는 될 법한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에서 하얗고 가드다란 연기가 모깃불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서로를 꼭 껴안은 라니와 엄마가 눈을 감은 채 차갑게 식어 가고 있었고요.

내가 놀란 눈으로 명하니 서 있을 때 아빠와 엄마, 라니를 죽인 반군 병사가 내 눈앞에 총부리를 겨눴어요.

“따라와! 넌 오늘부터 위대한 정의평등운동의 병사다.”

총과 칼, 무지막지한 욕설로 위협당하며 삼 일 동안을 밤낮없이 걸어 도착한 곳은 반군 부대의 캠프장이었어요. 그곳에는 적개는 열 살에서 많게는 열여섯 살 정도의 남자아이들이 수백 명도 넘게 모여 있었어

요. 모두 자기 몸보다 두 사이즈 정도는 큰 혈령한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허수아비 같더군요.

반군은 내게도 그들이 입은 것과 같은 군복을 입히고 AK-47이라는 이름을 가진 총을 줬어요. 길이가 어깨까지 오고 몸통은 내 허벅지보다도 더 두꺼운 총은 부모님과 여동생의 몸을 벌집으로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총이었어요. 장난감 총이 아니라 총알이 든 ‘진짜’ 총 말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진짜 총을 갖게 되었다며 좋아했지만, 나는 총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나는 총을 나눠 주는 키가 큰 형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우린 앞으로 여기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많아. 북부 수단의 정부군과 싸우는 전투에 나가기도 하고 짐꾼이나 연락병, 스파이 노릇도 하게 될 거야. 그중에서도 제일 멋진 일은 전투병이 되는 거지.”

다음 날 새벽부터 군사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총 쏘기부터 시작해서 어깨에 총을 메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낮은 자세로 기어가기,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숨기 등등 다양한 훈련을 받았지요.

겁이 많아 훈련을 잘 쫓아하지 못한 나는 수도 없이 발길질을 당하고 개머리판(총의 아랫부분)에 두들겨 맞아야 했어요. 그래도 그 정도 훈련은 그럭저럭 따라갈 만했어요. 그러나 총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훈련만큼은 정말 괴로웠어요.

4개월간의 고되고 잔인한 훈련을 마친 뒤, 드디어 우리에게 첫 번째

출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마을을 습격해서 불을 질러라. 그리고 주민들을 모두 죽인 다음 식량을 확보해라!”

내가 속한 F조 부대는 마을 어귀의 산속 수풀에 몸을 숨기고 어둠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붉게 타오르던 저녁노을마저 물러가고 마을 전체가 짙은 회색빛으로 변하자 대장이 손을 들어 올려 신호를 보내더군요.

우리는 일제히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갔어요. 소년병들은 캠프장에서 배운 대로 마을 여기저기에 수류탄을 던져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에게 총탄을 퍼부었지요.

우리 가족이 반군에게 당했던 일을 이제는 내가 그대로 해야 하다니……. 나는 손가락조차 까딱할 수 없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마을 사

람들을 다치게 할 권리가 내겐 없단 말이에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오들오들 떨고만 있는 나를 본 상관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하는 거야! 어서 총을 쏴! 죽이란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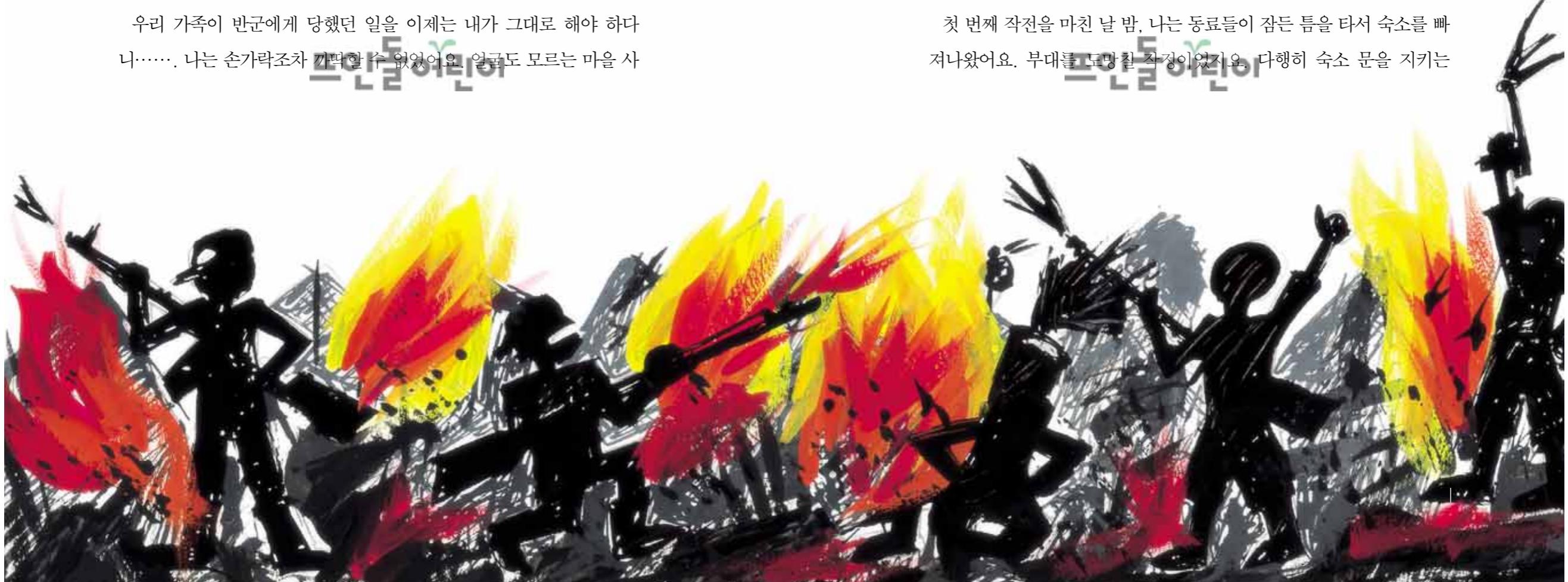
그래도 머뭇거리자 상관은 내 뒷덜미를 끌고 어느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는 짐을 꾸리느라 정신없는 한 가족이 있더군요. 방 안에는 먹다 만 저녁상이 텅굴고 있었고요. 상관은 내 뒤통수에 자동 소총을 바싹 겨누고 귓속말로 나직이 말했어요.

“라엘, 죽고 싶지 않으면 저들을 죽여라!”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텅! 텅!

첫 번째 작전을 마친 날 밤, 나는 동료들이 잠든 틈을 타서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부대를 도망칠 작정이었지요. 다행히 숙소 문을 지키는



소년병이 졸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죽인 채 맨발로 숙소 마당을 가로질러 부대 입구의 담장으로 다가갔어요. 보초가 비어 있는 위치를 확인한 나는 재빠르게 담장 위로 뛰어올랐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손이 공중에 봉 뜯 내 허리춤을 움켜쥐었어요.

“이 쥐새끼 같은 녀석! 어딜 도망치려는 거야?”

그날 나는 숙소로 끌려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딱 죽지 않을 만큼 매질을 당했어요. 이런 나를 보고 블리드 나이프 녀석이 딱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이 바보 명청아. 네가 여길 벗어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길거리에서 굽어 죽기 싫으면 잠자코 있으라고.”

며칠 후 두 번째 전투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반군 부대 소년 병 전원이 참여하는 큰 전투였어요. 캠프장에 끌려온 지 채 한 달도 못 되는 초보 훈련병까지 동원되었지요. 목표는 북부 수단 정부군의 주요 기지를 습격하여 폭파하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굉장히 멋진 전투가 될 거라며 흥분했어요.

그러나 소년병들이 부대의 맨 앞 행렬에서 싸우게 될 거라는 소식이 들리자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식어 버렸어요. 그건 곧 우리가 반군의 총알받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과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공포감에 휩싸였어요. 어떤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어떤 아이는 두려움을 참지 못해 군복을 입은 채 오줌을 쌌어요.

공포 속에서 뜬눈으로 밤을 보낸 우리는 이튿날 새벽이슬을 맞으며

부대를 나섰어요. 예상대로 소년병들은 부대의 선두를 맡았지요. 그날처럼 발걸음이 무거웠던 적이 또 있을까요? 부대가 정부군의 통신 기지 근처에 다다랐을 때, 다섯 명의 소년병들을 실은 차량이 기지 정문을 향해 돌진했어요. 차에 탄 소년병들의 가슴에는 책가방만 한 폭탄이 장착되어 있었죠.

쾅! 콰쾅! 콰콰콰 콩!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요란한 폭파 소리를 신호로 우리는 기지를 포위해 들어갔어요. 나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군화를 한 발 한 발 옮겼어요. 맞은편에서는 공격을 받은 정부군이 황급히 달려 나왔지요. 이윽고 총부리와 총부리가 서로를 향해 겨누어졌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어요.

‘죽지 않으려면 주어야 해!’

나는 살려고 싸웠어요. 내가 살 방법은 오직 다가오는 적을 찌르고 쏘는 것뿐이었지요. 사람을 죽인다는 공포심도, 죄책감도 모두 버려야 만 내 목숨을 구해 낼 수 있었어요. 난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면서 총칼을 마구 휘둘렀어요.

“나는 지금 잘못하는 게 아니야. 저들이 날 죽이려 하잖아? 내가 살려면 저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두 번째 전투에서 나는 총알이 팔꿈치를 스쳐 가는 상처를 입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부대에 실려와 눈을 떴을 때 반군 부대의 소년병 절반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치열한 전투에 지칠 대로 지친 우리는 동료를 위해 눈물을 흘릴 기운조차 없었어요. 그저 살아

돌아온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쉴 뿐이었지요.

전투가 거듭되면서 공포심이나 죄책감은 점점 무뎌 갔어요. 전투에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희미해졌고, 전투를 치른 밤마다 해 대던 토악질도 어느덧 멈추었지요.

대신 나와 동료들은 제법 쓸모 있는 살인 병기로 변해 가고 있었어요. 어느 편이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모른 채,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반군이 시키는 대로 충실히 싸우는 살인 기계가 되어 가고 있었지요. 대장은 우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정의평등운동은 갈 곳 없는 너희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배불리 먹여 주고 있다. 너희가 보답하는 길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뿐이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옴두르만 전투 때에도 난 그저 눈앞의 적군들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들에게 총을 겨눠야 하는 이유는 알지 못했어요. 오직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졌어요.

이 끔찍한 짓은 전투에 패배한 반군 단체가 소년병들을 내팽개친 채 달아나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나와 다섯 명의 소년병들은 끔짝없이 체포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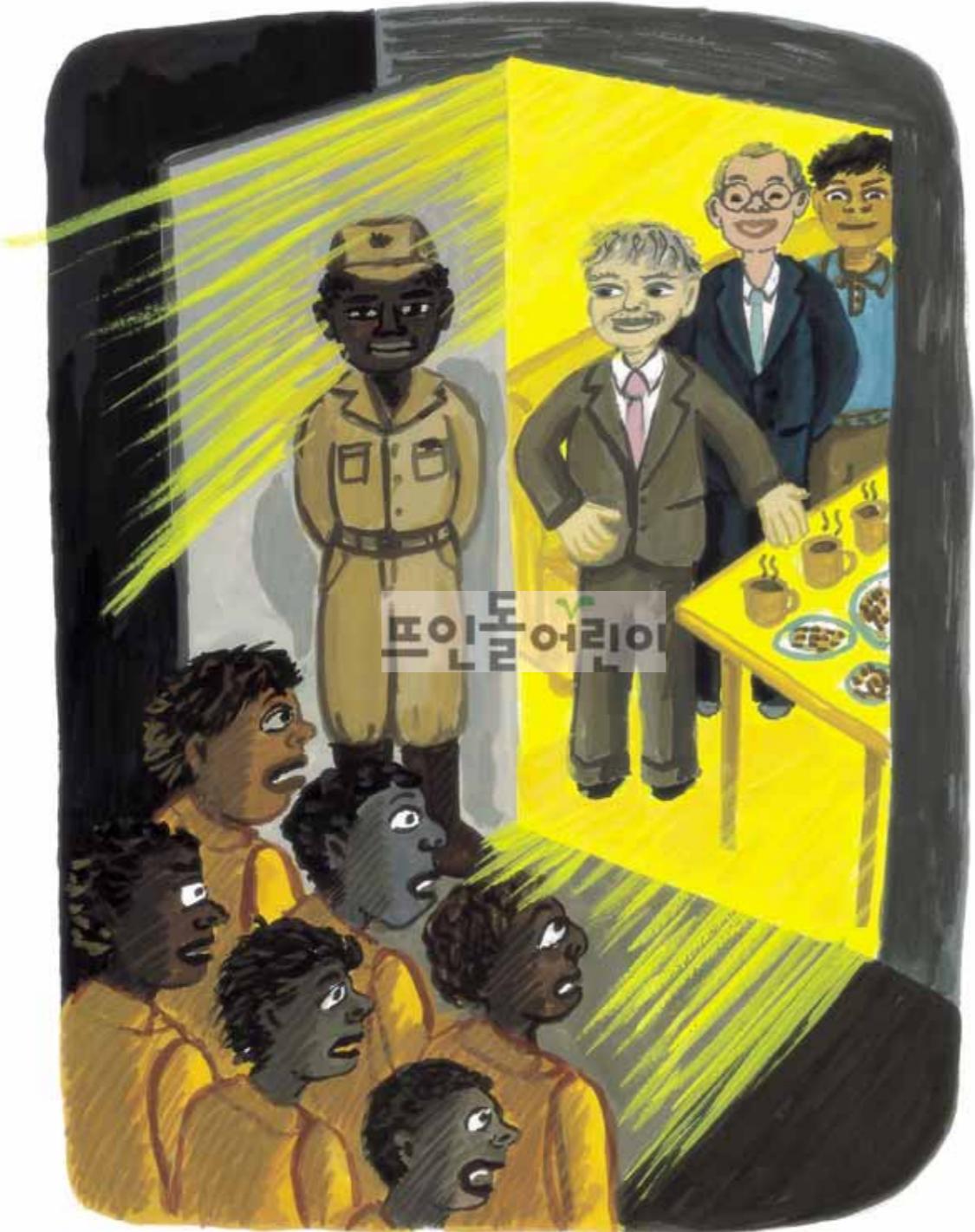
경찰서에 끌려와 조사를 받는 내내, 나는 내가 한 짓을 확인하며 몸 서리를 쳤어요. 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더군요. 그중에는 반군 단체를 공격한 정부군과 경찰도 있었지만, 아무 상관없는 민간인들도 많았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형 선고를 백 번 받는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죄를 뉘우치지 못했나 봐요. 교도관의 발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돼요.

“제발 오늘만은 사형시키지 말아 주세요. 하루만,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세요.”



하루만 더 살게 해 달라는  
라엘의 간절한 기도를 누가 들어줄까요?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갇힌 라엘과 다섯 명의 소년병들은 악몽 같은 나날을 보냅니다. 수용실로 향해 오는 작은 발소리에도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두근거리고, 교도관이 문을 열 때면 모두들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꼬리가 날카롭게 올라가 살모사라고 불리는 교도관이 수용실로 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다고 생각한 소년들은 수용실을 나가지 않으려고 울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침착하던 라엘도 교도관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요. 그러나 살모사 교도관은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소년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소년병들이 수용소 건물 왼편에 있는 작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곳이 당연히 사형 집행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모사 교도관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뜻밖에도 그곳에는 환한 햇살처럼 웃고 있는 어른 몇 분이 따뜻한 차와 비스킷을 마련해 두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서 나왔다고 자신들을 소개

하며 소년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취소되었단다. 이제 너희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

어린이들의 인권 문제를 알리고 시정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온 국제앰네스티는 소년병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수단의 어린이 사형 폐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에 끌려와 인간 무기가 되어 가는 소년병들의 처참한 실태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고 하네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은 소년병들의 사형을 중지시켜 달라는 탄원 편지를 수단 정부와 재판소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들은 소년병의 사형 집행을 취소하게 하는 결정적인 힘이 되어 주었지요. 재판소는 소년병들을 석방하고, 어린이들을 전투에 내보낸 반군 단체 지도자들을 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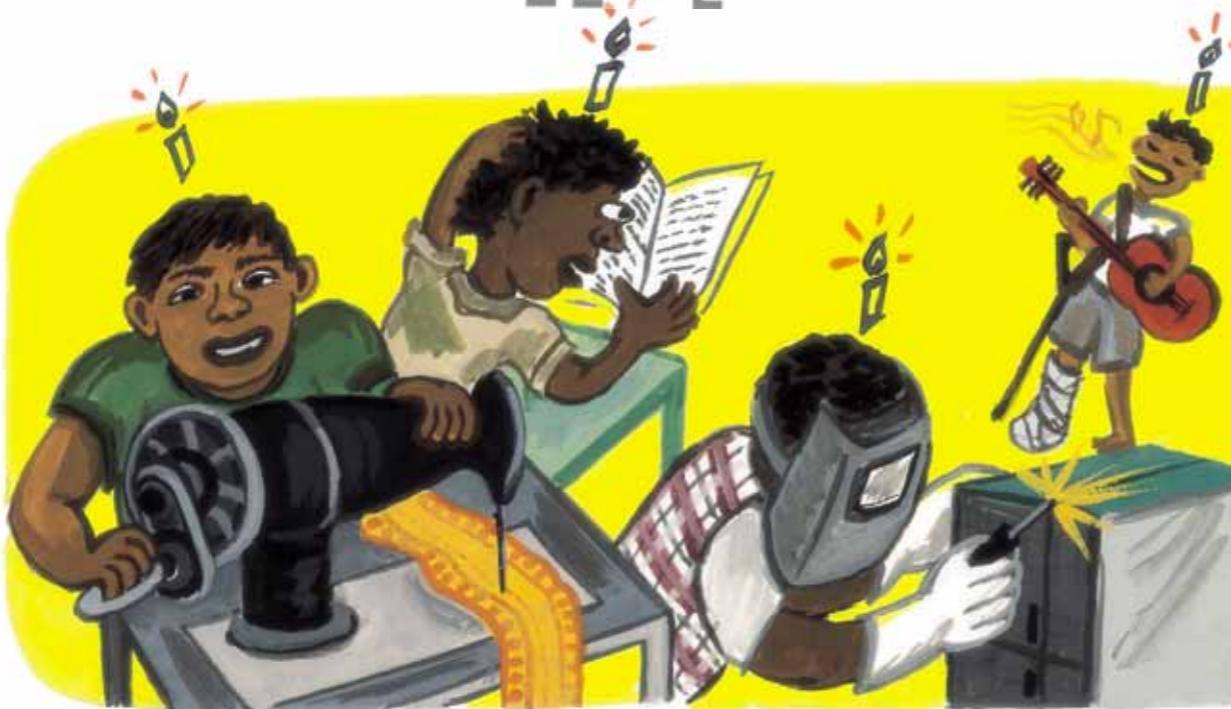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소년들은 교도소를 나와 재활훈련센터로 갔습니다. 소년들은 이곳에서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치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시 사회로 나와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도 받을 계획입니다. 더 기쁜 소식은 소년들에게 가족을 되찾아 주고, 가족을 잃은 라엘에게는 가까운 친척을 찾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재활훈련센터의 문을 들어서면서 라엘은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새롭게 얻은 생명을 절대 헛되이 쓰지 않을 거야!’

## 뜨인돌 어린이



## 뜨인돌 어린이



# 국제앰네스티

## 국제앰네스티는 어떤 곳인가요?

국제앰네스티는 국적, 인종,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로, 전 세계의 250만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국제적인 인권 단체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벌인 사형 반대 캠페인.  
국제앰네스티는 누가 어떤 죄를 지었든 죽음으로 몰아붙는 일만은 하지 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을 빼앗긴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벌이자고 호소했지요.

이후 이 기사를 읽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뜻에 호응하면서, 전 세계의 정치 수감자들과 정부의 폭력에 희생당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제앰네스티'가 탄생되었습니다.

##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960년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넨슨은, 포르투갈에서 두 명의 대학생이 자유를 위해 건배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7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에 분노하여 주간지에 글을 실어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탄

## 어떤 활동을 나요?

국제앰네스티는 인권 침해가 있는 모든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심수들의 석방, 정치범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 실시, 고문과 사형 금지는 오랫동안 추진해 온 주요 과제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문제 해결 방법은 캠페인이나 편지쓰기운동 등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입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간 수많은 양심수들을 자유의 몸이 되도록 했고, 135개의 나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지요. 또한 2006년 미국에서 아동처형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얻어 내기도 했습니다.

##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은 편지(답원서)쓰기를 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있어요. 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될지, 정부 기관에서 무시해 버리지는 않을지 걱정스럽지요?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40여 년 동안 다양한 사례를 통해 편지쓰기운동의 효과를 검증했어요. 마음이 담긴 편지는 수감자에게 좀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하게 하고 고문을 멈추게 하는 등 관계 기관에게 관대한 행동을 취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정책을 바꿔 양심수를 석방시키는 좋은 결과까지 얻어 내기도 하지요.



종이와 펜 한 자루로 시작된 사람들의 작은 뜻이 모여 상상도 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답니다.



장난감 총을 가지고 오면 책과 바꾸어 주는 캠페인을 벌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 World Health Organization

| 세계보건기구 |



몇 해 전 그녀석이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 열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반갑지 않은 녀석이 올해 또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목숨을 내맡긴 그저 녀석의 키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녀석은 바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를 이겨 낼 방법은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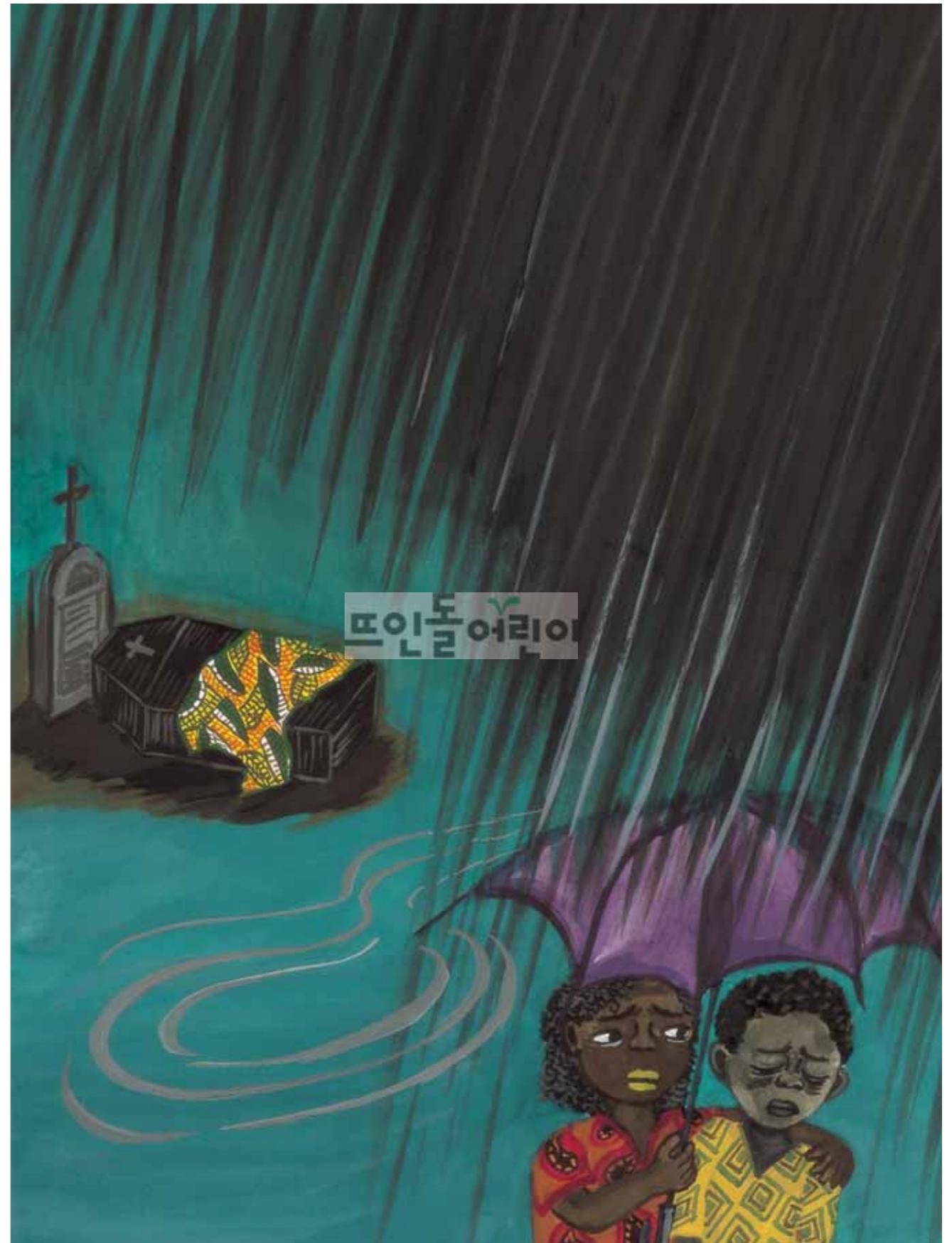




4월 초순부터 내린 장맛비는 5월이 반이나 지났는데도 멈출 짐새를 보이지 않았어요. 기나긴 장마로 잠비니아(탄자니아의 잔지바르에 있는 시골 마을)는 매일같이 물난리를 겪고 있었지요. 그래서 화장실마다 물이 넘쳐 똥오줌이 빗물에 섞여 마을을 흘러 다녔어요. 여길 가도 저길 가도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지요.

그즈음,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쓰레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설사 병에 걸려 꼬박 일주일을 앓다가 눈을 감은 할머니는 왜소한 몸집만큼이나 작은 판에 모셔졌지요. 쓰레이이는 일찍 하늘나라로 간 엄마 대신에 자신을 키워 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 충격에 몸도 제대로 누지 못할 정도로 울고 또 울었어요.

관이 땅속에 묻힐 때 쓰레이이는 할머니가 평소에 아껴 입던 고운 무늬의 칭가(탄자니아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여성들이 치마처럼 몸에 두르거나 걸쳐 입



는 화려한 무늬의 천)를 고이 엿어 드렸어요.

잠시 멈췄던 소나기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거세게 퍼부었어요. 나는 살이 빠져 나간 우산을 조심스레 펴서 쓰레이와 나눠 썼어요. 쓰레이이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그치지 못했어요.

“이제 그만 슬퍼해. 네가 이렇게 우는 걸 알면 할머니도 마음 편히 떠나실 수 없을 거야.”

내 말에 쓰레이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더 서럽게 울었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

“그럼 나한테 너의 슬픔을 반만 나눠 주지 않을래? 좋은 친구란 슬픔을 나눠 갖는 거잖아.”



“움추미, 고마워. 노력해 볼게.”

나는 가만히 쓰레이의 어깨를 안아 주었어요.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쓰레이를 위로해 줄 선물을 빨리 주고 싶은 생각에 서둘러 왔지요. 언젠가 해변에서 관광객이 놓고 간 잡지를 주운 적이 있는데 거기서 오린 예쁜 꽃종이로 책갈피를 만들었거든요. 이걸 주면 쓰레이가 함박웃음을 되찾을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쓰레이이는 끝내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바보, 아직도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수업 시간 내내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못하던 나는 학교가 끝나자마

자 쓰레이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쓰레이! 집에 있니?”

나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쓰레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평소 같으면 내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문을 열어 줄 쓰레이가 오늘은 어쩐 일인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네요. 발길을 돌리려는데 흙집 문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움추미, 들어와.”

쓰레이이는 방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왜 학교에 안 왔어? 내가 선물도 준비했는데…….”

쓰레이가 간신히 힘을 내어 말했어요.

“응, 몸이 좀 아파서…….”

“어디가 아픈데?”

“먹은 게 체했는지 밤새 토했어. 오늘 하루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쓰레이에게 이불을 덮어 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다음 날에도 쓰레이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맨 앞자리에 앉는 사오니도 결석을 했어요. 사오니도 먹은 게 체한 걸까요? 나는 선생님 말씀을 듣는 등 마는 등 수업을 마치기가 무섭게 쓰레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쓰레이, 나야. 방에 있지?”

나는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화악 하고 고약한 냄새가 풍겨 오지 않았어요? 그 냄새는 화장실에

서 나는 것과 같았어요.

쓰레이이는 어제처럼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하루 사이에 볼은 헬쑥해지고 두 눈은 쭁하니 들 어간 게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지요.

“아직도 많이 아프구나.”

쓰레이이는 기운 없는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응.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할머니가 편찮으셨을 때랑 똑같은 것 같…….”

쓰레이이는 말을 하다 말고 황급히 몸을 일으켜 뒷문으로 달려 나갔어요. 그때 나는 쓰레이의 엉덩이가 누런색으로 젖어드는 것을 보았어요. 물 설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쓰레이, 왜 그래? 괜찮은 거야?”

뒷문 밖에서는 좌라락 좌라락 철사하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리고 보니 일부자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네요. 나는 그제야 화장실에서 나는 것 같은 고약한 냄새의 정체를 알았어요. 나는 쓰레이가 걱정스러웠지만, 설사하는 모습을 들켜 창피해할 것 같아 얼른 집을 나왔어요.

저녁밥을 먹으면서 부모님께 쓰레이 이야기를 했어요.

“쓰레이가 아픈 것 같아요. 계속 토하고 설사한대요. 기운도 없어 보이고요.”

내 얘기를 들은 부모님은 깜짝 놀란 얼굴로 동시에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고약한 냄이 또 마을을 덮치려는 모양이군.”

“아빠, 그놈이 누군데요?”

“아마도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아닐까 싶구나.”

촌장님 댁 농사일을 거들어 주고 계신 아빠는 오늘 촌장님이 설사 병으로 앓아누웠다면 그 증세가 쓰레이 할머니와 똑같아 보인다고 했어요.

“어머나, 이 일을 어떡해요.”

엄마는 몇 년 전에 일어난 재앙이 또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냐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으셨어요.

7년 전, 내가 세 살 때 우리 마을에 콜레라가 돌아 마을 사람이 열 명도 넘게 죽은 일이 있었대요. 다들 쓰레이 할머니처럼 몇 날 며칠 구토와 물 설사에 시달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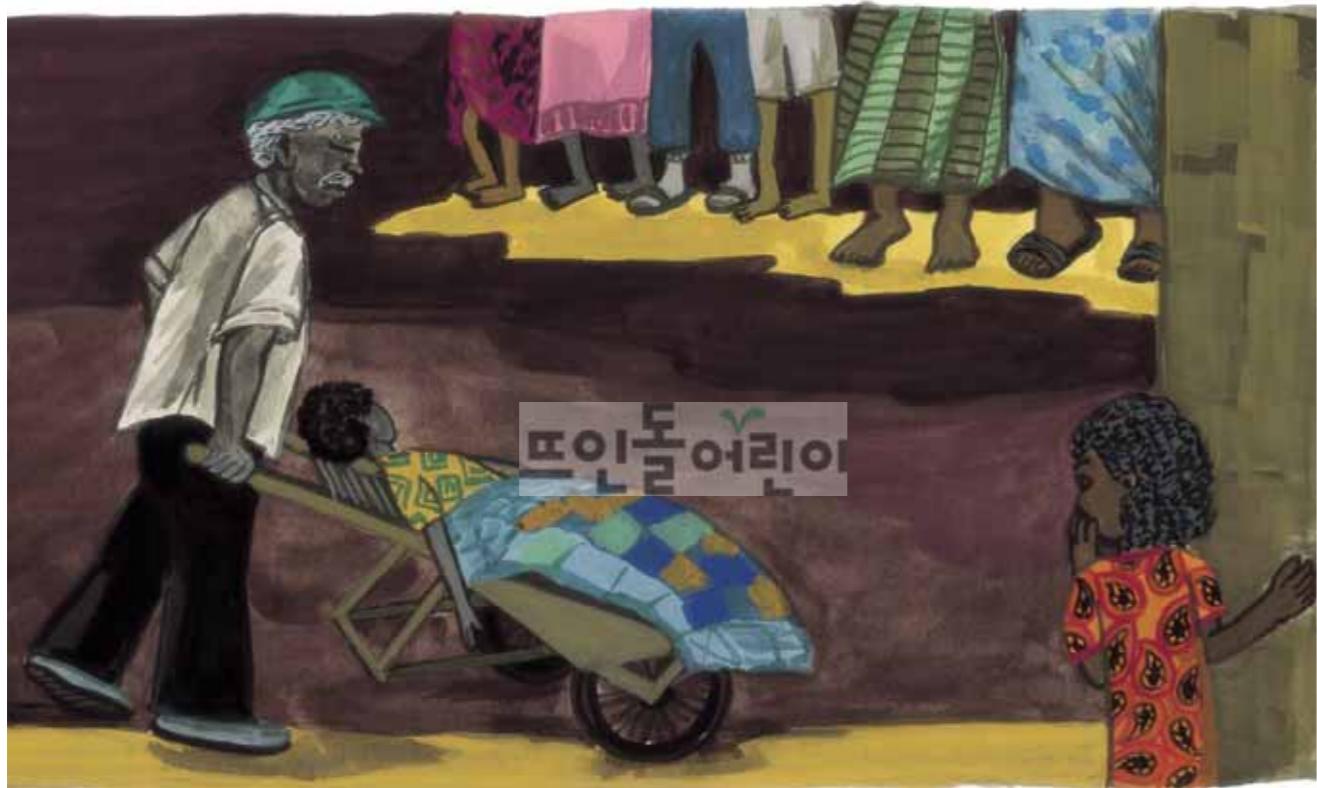
“그 병에 전염되면 끔찍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

엄마는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나는지 두 눈을 꼭 감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병을 낫게 할 방법은 없나요? 병원에 가면 되지 않나요?”

내 말에 엄마도 아빠도 피식 웃었어요. 나도 내가 한 말이 하도 어이없어서 웃고 말았지요.

우리 마을에서 과연 병원에 가 본 사람이 있거나 할까요?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듯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살림살이에 엄청나게 비싼 치료비를 내야 하는 병원에 가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지요. 잠비니아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루 정도 푹 쉬는 걸 최고의 약으



로 생각한답니다.

“그럼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신의 뜻에 맡길밖에…….”

엄마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내 두 눈을 바라보며 단단히  
당부하셨어요.

“움추미, 절대로 쓰레이 집에 가면 안 된다. 알았지?”

학교에는 쓰레이 말고도 몇몇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빈  
자리를 보는 선생님의 표정이 어제 내 이야기를 듣고 놀라시던 부모님  
의 표정과 똑같았어요. 절대 쓰레이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엄마의 신  
신당부가 있었음에도 학교가 끝나자마자 내 발걸음은 저절로 쓰레이  
의 집으로 향했어요.

**뜨인돌 어린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누군가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  
요. 나는 쓰레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안타깝게도 예감은 적중했지요.

곧 문이 열리고 아저씨가 장작개비처럼 마른 쓰레이의 시신을 안고  
나왔어요. 나는 너무 무서워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어요. 목구멍에서  
뜨거운 게 울컥하고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쓰레이는 아저씨의 손수레  
에 실려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쯧쯧, 어린것이 가엽기도 하지. 아프다고 드러누운 지 이틀 만에 죽  
었네그려.”

“글쎄, 야자나무 집 막내아들도 오늘 아침에 같은 증상으로 죽었다지

뭐예요.”

“애고, 지금 남 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른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죽 늘어서서 수군대기만 할 뿐 아무도 아저씨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나는 쓰레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지만 발이 땅에 박혀 버리기라도 한 듯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외치고 다니던 내가 병에 옮을까 두려워 몸을 사리고 있다니……. 이렇게 비겁한 친구가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을까요…….

그날을 시작으로 학교에는 결석하는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 갔어요. 며칠 얼굴을 보이지 않던 아이들은 끝내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고, 저세상으로 떠났다는 소식만을 전해왔어요. 아직 건강한 아이들은 ‘누가 병에 걸렸다더라’라는 말만으로도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선생님은 정부에서 마을에 도는 전염병을 ‘콜레라’라고 확인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멈출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휴교령을 내렸어요.

마을 거리에도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모두들 병에 옮을까 봐 집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요. 나도 물을 길으러 우물에 갈 때 빼고는 바깥에 나가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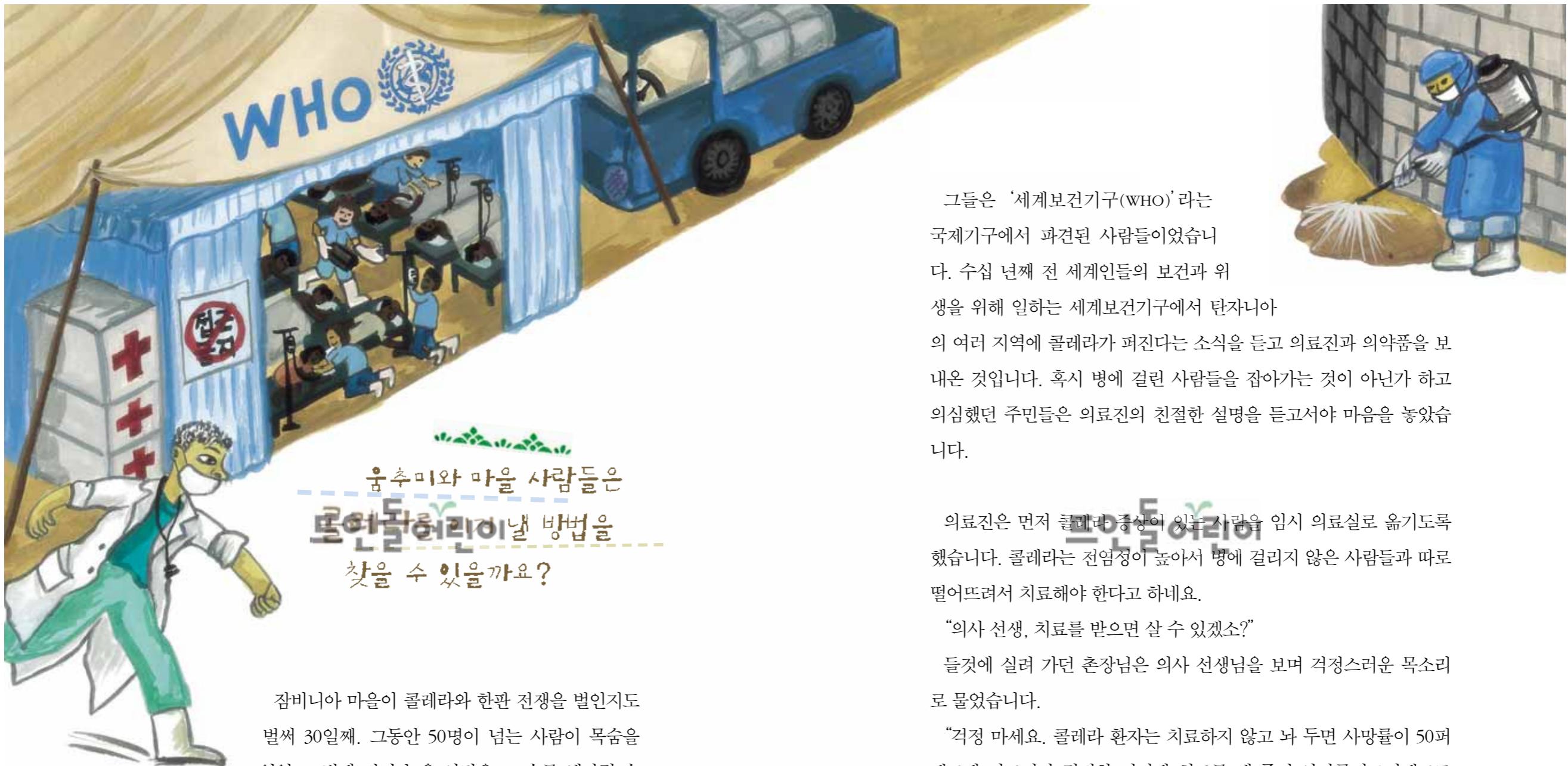
아무리 조심을 해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집집마다 병자가 생겼어요. 줄기차게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장송곡 같았어요.

우리 가족은 다행스럽게도 아직 아무런 증세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도 기쁘지가 않아요. 어느 집 문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우리 가족만 멀쩡하다는 사실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의 공포에 몸이 마구 떨려 오네요. 대체 이 무서운 전염병과의 전쟁은 언제쯤이면 끝나게 될까요?

병과 싸울 준비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우리에게 이건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에요. 우리가 모두 쓰러지기 전에 전염병을 이겨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잠비니아 마을이 콜레라와 한판 전쟁을 벌인지도  
벌써 30일째. 그동안 5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병에 걸려 누운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마을이 사라지는 건 시간문제라  
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또 내쉬었습니다. 그즈음, 난데없이 마을로 여  
러 대의 대형차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세계보건기구(WHO)'라는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째 전 세계인들의 보건과 위  
생을 위해 일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탄자니아  
의 여러 지역에 콜레라가 퍼진다는 소식을 듣고 의료진과 의약품을 보내온 것입니다. 혹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던 주민들은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서야 마음을 놓았습  
니다.

의료진은 먼저 콜레라 증상이 있는 사람을 임시 의료실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콜레라는 전염성이 높아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따로  
떨어뜨려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네요.

"의사 선생,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겠소?"  
들것에 실려 가던 촌장님은 의사 선생님을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  
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콜레라 환자는 치료하지 않고 놔 두면 사망률이 50퍼  
센트에 이르지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 주면 사망률이 1퍼센트로  
뚝 떨어진답니다."

촌장님은 반쪽으로 줄어든 얼굴에 모처럼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임  
시 의료실로 실려 갔습니다.

학교에 마련된 또 하나의 임시 의료실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움추미는 아프지도 않은데 왜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주사 맞기를 겁내는 사람들의 표정을 본 의료진이 즉석에서 백신 강의를 한 것입니다.

“백신은 병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병원체를 말해요. 이 병원체를 몸 속에 넣어 두면 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서 질병을 이겨 낼 수 있게 되지요. 지금 여러분이 맞는 백신 주사는 앞으로 콜레라에 걸려도 거뜬히 싸워 이겨 낼 수 있는 무기를 몸속에 저장해 두는 것과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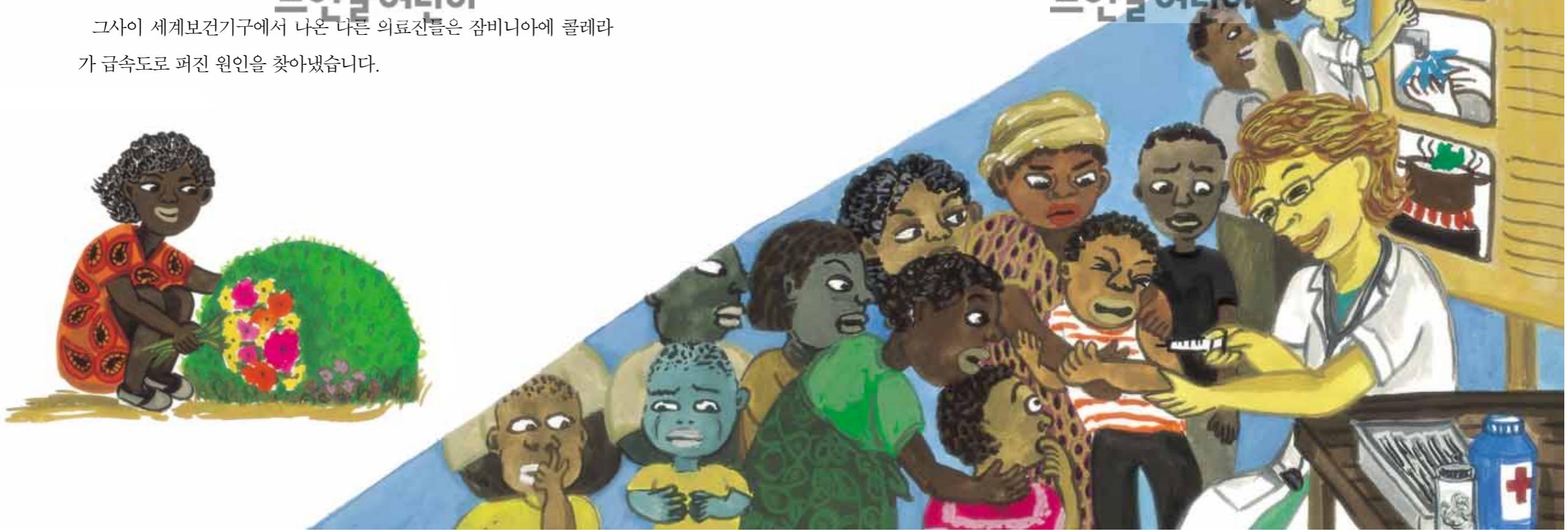
움추미는 난생처음 보는 기다란 주삿바늘이 무서웠지만 눈을 질끈 감고 맞았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벌벌 떨거나 우는 건 무기를 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었지요.

그사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다른 의료진들은 잠비니아에 콜레라가 급속도로 퍼진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긴 장마 때문에 오염된 식수와 비위생적인 화장실 시설, 그리고 열악한 공중위생이 마을 사람들을 병에 걸리게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의료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위생 관리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와 탈수를 방지하는 소금,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약 등이 담긴 구급약품을 한아름 안겨 주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의료진이 떠나던 날, 움추미는 쓰레이가 묻힌 마을 뒷산으로 갔습니다.

“쓰레이, 네가 우리 마을에 수호천사를 보내 준 거 맞지? 정말 고마워!”



# 세계보건기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본부

드안돌아온다

작되었습니다. 이후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로 탄생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는 어떤 곳

인가요?

세계보건기구(WHO)는 병으로 죽어 가거나 혹은 제때 치료 받지 못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세계적인 보건 단체입니다.

1945년 미국에서 국제연합을 창설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을 때 건강 분야의 국제기구를 조직하자는 중국과 브라질의 제안에 참여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시

작되었습니다. 이후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로 탄생했습니다.

##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세계보건기구의 목표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병에 관한 백신 사용이나 암, 에이즈 연구 등 건강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각국이 빨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유행성 질병이나 전염병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열어 질병을 알리거나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의료시설을 만들어 지원해 주는 것도 세계보건기구의 주요 활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가의 오지 마을에 식수를 마련해 주거나 환경을 개선해 주며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교육을 시키

는 일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결핵, 콜레라, 홍역, 말라리아, 설사병 등으로 목숨을 잃는 이들이 크게 줄어들었지요. 이 외에도 의약품이나 식품 등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안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를 어떻게 정복했나요?



천연두는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가장 공포스러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천연두의 공포로부터 인류가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최초의 종두 주사를 접종하고부터입니다. 제너는 소에게 ‘우두(소가 앓는 천연두)’를 옮은 하녀의 손바닥에서 뽑은 고름을 그녀의 여덟 살 난 아들에게 주사했는데, 이때 아이가 맞은 소의 고름이 최초의 천연두 백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법이 생긴 후에도 인류는 오랫동안 천연두와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이 긴 싸움을 끝낸 것이 바로 ‘세계보건기구’입니다. 1959년에 ‘천연두 퇴치 계획’을 세운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에 백신을 보급하고 접종하여 마침내 1980년 5월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천연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일을 기록으로 삼아 각종 전염병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이 필리핀 마닐라의 한 홍수 피해 대피소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드인돌 어린이



드인돌 어린이